

광 고

원양산업

제 1157 호

(2023년 5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비매물)

Contents



협회소식

- 협회, Sh수협은행과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 / 4
- 협회,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이행 노사정 합동점검 개최 / 5
- 냉동공치 조정관세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 6
- 원양어업 선원 정책계획 수립을 위한 업계간담회 개최 / 6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3년 4월 보고 내용 / 7

요리 만들기

- 메로 칠리 파스타 / 12



해외수산정보

■ 국제유가 동향

- 5월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월 대비 하락 / 13

■ 참치어업 동향

-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2,050 달러 / 14
- 日 3월 냉동 농다랑어 수입가, kg당 878 엔 / 14
- 중서부태평양 3월 전재량 소폭 증가 / 15
- 동부태평양 1분기 참치 어획량, 10년 만의 최대치 / 15
- 日, 3월 냉동 참치류 수입 통계 발표 / 16

- NOAA 엘니뇨 주의보, 태평양 참치어업에 호재 / 17
- 만타 가다랑어 가격, 톤당 1,850 달러 / 17
- EU, 인도양 참치 선박에 공해상 검사관 승선 제안 / 18
- 지원선 제한, EU의 IOTC FAD 조치 반대 사유 중 하나 / 19
- ISSF, 인도양 참치 FAD 관리조치 개선 요구 / 19
- 퓨 재단 "인도양 참치자원 개선 위해 근본적 변화 필요" / 20
- 프랑스, 인도양 FAD 조치에 반대 / 21
- NGO "인도양 선단, 조업 후 FAD 회수해야" 주장 / 21
- EU, 2022년 자속 로인 국가별 수입 내역 발표 / 22
- EU 2022년 자속 로인 수입, 기록적 증가 / 22
- EU 2022년 로인 수입, 처음으로 원어 수입 추월 / 23
- 해바라기유·콩기름 가격, 계속해서 하락세 / 23
- 美, 태평양 도서국 MPA 확장 계획 착수 / 24
- 태평양 도서국 참치 조약, 美 의회 대립으로 난항 / 24
- 젤리 FAD, 해상 시험 단계 돌입 / 25
- ISSF 연례 감사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규정을 준수 / 25
- 참치, 기후 변화 영향이 적은 단백질 공급원 / 26
- 신형 오메가-3, 알츠하이머 환자 시력 저하 예방 / 27
- 세이셸, 선단 활동 디지털 모니터링 기술 도입 / 27
- 참치 포럼, 노동자 권리 지침 초안 발표 / 28
- 동원수산한성기업, 태평양 연승어업 MSC 인증 청신호 / 28
- 에콰도르 선망어업, MSC 인증 확대 추진 / 29
- FCF社 태평양 농다랑어 선망어업, MSC 인증 취득 / 29

Contents

- 2023년 1~2월 베트남산 참치 꺾 수출, 3배로 증가 / 30
- 베트남, IUU 규정 준수에 대한 네 번째 EC 점검 준비 / 30
- MSC, 글로벌 수산물 미래 포럼 참석 / 31
- 최신 연구, 대서양 황다랑어 미세플라스틱 문제 경고 / 31
- 타이유니온, 1분기 순이익 45% 급감 / 32
- 스페인 연구, “참치 셀레늄 건강 이점 추가 발견” / 32

■ 오징어어업 동향

- 中 일렉스 오징어 가격, 바르셀로나 전시회 앞두고 급등 / 33
- 中 오징어 선단, 페루 모니터링 회피 중 / 33
- 페루 대왕오징어 가격 상승 / 34
- 포클랜드 수산청 주간 어획량 발표 / 34

■ 명태어업 동향

- 러, 182만 톤 이상의 어획량 기록 / 35
- 中 명태 수입 및 수출 가격 지속 상승 / 35
- 러 명태 TAC, 생산금액 감안한 계획 필요 / 36
- 러 수산청, 러시아 위성으로부터 AIS 데이터 수신 시작 / 36
- 수산물 가격, 러시아 시장의 주요 제약 요인 / 37
- 러, 영해 밖에서 성공적으로 조업 / 37
- 러, 불법어업선박에 대한 데이터 공유 준비 완료 / 38
- 러, Inmasat 대신 자국 시스템으로 변경 / 38
- 日, 2022년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액 12억 달러 / 39

■ 공치어업 동향

- 日 수산청, 2023년 공치 TAC 24% 감축 제안 / 39

■ 각국 수산 동향

- 물가 상승으로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실적 최고치 / 40
- 환경정의재단, 수산물 이력추적 강화 촉구 / 40
- 베트남 수산물 무역 그룹, 韓 불공정 대우 주장 / 41
- 美, 북극해 상업 어업 개시 준비 / 41
- 美, 1분기 수산물 인플레이션 둔화 / 42
- 日, EU에 식품 규제 철폐 요청 / 42
- 전 세계 어분 생산량 1.5배 증가 / 43
- 러, 쿠나시르 섬에 어분 및 어유 시설 건설 / 43
- 中, 2023년 1분기에 기록적인 양의 새우 수입 / 44
- RFC사, 특수 트롤 조업 방식 사용 / 44
- 유럽어업 단체, 저인망 트롤 금지에 반대 시위 / 45
- 러, 사료 부족에도 양식 생산량 16% 증가 / 45

■ 쉬어가는 난 (시)

- 〈어부〉 - 김종삼 / 46

■ 국내 수산 정보

- 4월 오징어 국내 동향 / 47
- 4월 명태 국내 동향 / 49
-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할 사업대상자 모집 / 51
- 방사능 검사 대상 수산물, 국민이 직접 정한다 / 51
- 중대재해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일터 만든다 / 52
- 러시아 어선화재, 러시아 선원 21명 구조 / 53
- 북극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53

협회, Sh수협은행과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 운전자금 집행 및 임직원 금융편의 제공, 자금관리 안정성 제고



우리 협회는 11일 Sh수협은행과 ‘원양산업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수협은행 강신숙 은행장과 한국원양산업협회 윤명길 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협은행은 앞으로 한국원양산업협회가 관리하는 주요 운전자금을 집행하고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등 자금운용에

관한 금융서비스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수협은행 강신숙 은행장은 이 자리에서 “지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가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원양산업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조업을 이어가길 바란다”라며 “수협은행은 이번 주거래은행 협약을 통해 협회의 동반성장 상생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 협회 산하 회원사들에게까지 원활하고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협회,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이행 노사정 합동점검 개최

2023년 1분기 회의...승선 전부터 본국 귀국까지 고용 전반 점검



2023년 1분기 외국인 선원 근로조건 이행 노사정 합동점검 회의가 4월 1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노사정 합동점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 방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분기마다 실시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김행숙 사무관 외 1명,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김근용 국장 외 1명,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 김영수 본부장 외 1명이 참석하였으며 협회에서는 이형균 경영지원본부장, 소기동 회원지원부장 외 1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23.1.1-3.31까지 우리 원양선사 28개사 182척에 승선한 4,344명의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자료를 바탕

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의 내용으로는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사용 여부 △ 승선 과정 중 비용 지급 여부 △ C188 협약 지정 최소 휴식시간 부여 여부 △ ITF/ILO 지정 최소임금 이상 지급 여부 및 정기적 지급 여부 △ 고충 상담 정기적 실시 여부 △ 선박 비상 생수 비축 여부 △ 하선 선원 대상 승선기간 중 폭언·폭행·성추행 경험 유무 △ 1년 이상 조업 요구 시 10개월 도래 시 하선희망자 수요 조사 여부 등 8개 항목이 있다.

동 점검은 원양어선에 승선 전부터 승선한 후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고용 전반을 점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문제 발견 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냉동콩치 조정관세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개정 유보 및 전면 재검토 의견 제출

우리 협회는 지난 4월 13일 해양수산부에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다.

우리 협회는 원양 콩치붕수망어업이 그간 콩치 국내 공급 및 어가 방어 등에 기여한 점에도 불구하고, 신한일어업협정 미체결로 인한 일본 수역 콩치어업 중단 및 자원 악화에 더하여, 경기 불황으로 인한 내수 부진 및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업계 전체가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있음을 설명하였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관세만 납부하고 식품안전성 검사 없이 수입되는 비식용 냉동 콩치가 식용 콩치로 둔갑하여 유통된다면 유통질서 교란 및 안전성 우려로 업계 타격이 불가피함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업종인 콩치붕수망 업종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피해 보호책 없이 마련된 동 개정안은 업계에 너무나 가혹한 조치가 될 것이기에 개정 유보 및 전면 재검토를 건의한다는 의견을 해수부 측에 제출하였다.

원양어업 선원 정책계획 수립을 위한 업계간담회 개최 관련 현안, 실태 파악 및 의견 교환

우리 협회는 지난 4월 26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원양어업 선원 정책계획 수립을 위한 업계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는 '제4차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 및 '제2차 선원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관련, 원양어업선분야의 선원인력수급, 근로여건, 외국인 선원 등 관련 현안과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대응이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KMI 정명화 실장 외 연구진 4인

및 노사위원사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소기동 회원지원부장 외 회원지원부 2명이 참석하였다.

주요 의견으로는 △ 외국인 해기사 도입 △ 원양어선 감척사업 검토 필요 △ 톤급별, 기관출력별 법정승무정원 완화 △ 통신장 겸직조항 완화 △ 오션폴리텍(5급) 과장 수료시 해기사면허 발급 필요 △ 원양산업 지원 예산 증대 △ 중고선 도입 가능토록 규제 해소 △ 오션폴리텍 교육과정 내실화 필요 △ 수산계 학생 대상 설문조사 등이 제기되었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4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가. Ndayane 다기능 항구 건설 개시

- 세네갈 다카르에서 50km 떨어진 Ndayane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다기능 항구 건설이 시작되었다.

○ 2026년 운영 예정인 해당 항구는 현대적 인프라를 갖추고, 세네갈 최대 선박들을 수용하고,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할 예정으로, 세네갈 해운 경제를 발전시키고 서아프리카 주요 무역 허브로서 세네갈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나.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유로/톤)	유종	조사일
다카르	625	경유	'23.4.26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유로/톤)
가다랑어	3.4kg~	1,950
	1.8~3.4kg	1,900
	1.5~1.8kg	1,750
황다랑어	10kg~	2,100
	3.4~10kg	2,000
	1.8~3.4kg	1,900
눈다랑어	10kg~	1,950
	3.4~10kg	1,950
	1.8~3.4kg	1,900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가. 피지 정부, 어업 관련 법률 및
신청책 검토, 입안 결정

- Sitiveni Rabuka 피지 수상의 어업법 개정 및 현대화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어업 관리법이 빠른 시일 내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 피지는 참치의 개체수 관리를 위해 어업 라이선스를 60개로 제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 반(半) 국영공장인 참치로인 가공공장 PAFCO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원활한 원료 확보를 위해 어선 투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제공, 관련 업계 금융지원 등 해결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 피지 수산 부처, 향후 5년 어업 부문 수익 목표 5억 달러 책정

- Atalaite Rokosuka 어업 사무차관 대행은 최근 1년간 1억 8,74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해당 부문의 다른 잠재적 영역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다. 피지 재정검토위원회, 부가가치세 인상 권고

- 위원장 Naidu는 정부가 기본 식품 품목에서 VAT 0% 등급을 제거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라. 피지, 5G 네트워크 설치 추진 중

- Manoa Kamikamica 피지 통신부 장관은 피지에 5G 네트워크를 설치하기 위해 통신 회사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마. 中 대사관, 中-피지 회담 취소 해명

- 피지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최근 중국 외교부 부부장 Ma Zhaoxu와 Sitiveni Rabuka 총리 사이의 회담이 취소되어 외교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하여 중국은 항상 피지와 우호 관계에서 성실과 선의를 견지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바.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날개다랑어	10kg 상	2,800	로인가공용(PAFCO)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TOTAL	1,075\$/톤	MGO	'23.5.10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관

가. 어업 동향

- 금일 사모아 및 연근해 어장인 쿡 아일랜드 어장에서의 평균 어획량은 날개다랑어 0.5~1.0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 0.2~0.4톤이다.

나. 사모아 남서쪽 지진 발생...직접적 위협 없어

- 10일 오전 5시 2분경 사모아의 사바이섬 남서쪽 약 176마일 지점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나, 태평양 쓰나미 경보 센터에 따르면 이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위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조사일
Clipper; Oil	\$3.19(gallon)	'23.5.9

라.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황다랑어	라운드	1,700	
눈다랑어	라운드	1,500	
가다랑어	라운드	1,500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관

가. 뉴질랜드-영국 FTA 시행 임박

- 5월 말에 뉴-영 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이 되면 5월 말부터 수출되는 45%의 수산물에 면세된다. 3년 뒤에는 전체 수출되는 수산물의 99.5%가 면세되고, 7년 뒤에 100% 면세가 될 예정이다.
- 뉴질랜드 HOKI는 5월 말부터 면세대상이므로 즉시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톤)	유종	조사일
Z	967	MGO	'23.5.9

다. 어류가격 동향

어종	규격	단가(\$/톤)	비고
SQUID	2L	5,400	-
	L	5,300	
	M	4,200	
	2M	4,200	
	S	2,350	
	2S	-	



이상우 아르헨티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상우
명예해양수산물

가. 어업 동향

- 현재 일렉스 오징어 수확이 좋지 않은 가운데 1분기 어획량은 6만 5,000톤을 기록하였다.
- 최초 44도선의 북쪽 지역에서 시작된 아르헨티나 오징어 평균 어획량은 전년 동기 평균(26t/일)이하인 12t/일 정도로 집계된다.
- 일반적으로 평균 어획량은 S사이즈가 96%, SS 사이즈가 3%, 나머지는 M 사이즈로 다른 해에 비해 다소 작은 사이즈가 잡히는 편이다.
- 1월에 200g 이상이었던 점에 비하면 반대로 사이즈가 작아졌고, 어획량도 하락한 가운데 전년 보다 좀 더 일찍 포클랜드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미 오징어 가격이 폭등 중이다.
- 이에 따라 수출가의 급상승이 예상되고 수출업체는 수출 대신 물량 확보, 저장에 집중하고 있다.

나. 환율 문제로 인해 수출자 피해

- 4월 18일 현재 아르헨티나 공식 달러 환율 215페소(USD 1.00), 비공식 암달러 환율 420페소(USD 1.00) 두 환율이 공존하면서 시장에서는 암달러를 기준으로 각종 자재 및 원료 등이 폭등하는 가운데 정부는 공식 환율을 고집하여 수출자들에게 큰 타격이 되고 있다.
- 외환결제가 들어오면 정부차원에서 강제로 공식 환율을 적용하여 수출자에게 폐소로 지급하지만, 수출자들은 암달러 시세에 맞춰 어대금 및 각종 비용을 지급하여 도리어 수출자가 막대한 적자를 보게 되는 실정이다.

- 이를 해소하고자 중간시세를 만들자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이는 일부 품목에 한하고 그마저 정부에서 요구하는 많은 플랜과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정부와 수출자 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리터)	유종	조사일
EPSOL YPF	1.16	MGO	'23.4.17

아. 어류가격 동향

어종	사이즈(g)	가격(\$/톤)	비고
일렉스	200-300	3,100	-
일렉스	300-400	3,300	-
일렉스	400-600	3,500	-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

가. 2023년 7월부터 전통 어선 및 트롤선 금어기 시행

- 올해의 금어기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시행될 것이라고 수산양식 개발부(MoFAD)가 발표하였다.
- 전통 카누 어선들은 7월 1일과 31일 사이, 트롤 어선들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의 조업금지 기간을 준수할 예정이다.
- Emmanuel Dovlo 어업위원회 어업조사과학과장은 2022년 보고서에서 어획량 자료와 생물학적 연구를 분석한 결과 7월과 8월이 금어기 관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면서 "작은 원양종, 정어리, 멸치의 하역량은 금어기 이후에 더 높았다."라고 말하였다.



나. 유조선, 코트디부아르 EEZ 밖에서 해적 피랍

- 보안 기관은 지난 4월 10일 코트디부아르 인근 기니만 북부 지역에서 이번에 또 다른 유류운반선에서 진행 중인 해적 사건에 대해 경고를 발령하였다.
- 기니만 감시 활동중인 MDAT-GoG는 Abidjan항 남쪽 약 300 마일 떨어진 곳에서 알려지지 않은 수의 해적들이 유류운반선에 탑승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경보를 발행하였다.
- 최근의 사건은 해적들이 기름을 약탈하기 위해 그 지역의 유류운반선을 공격하고 있는 여러 사건 중 하나로 여겨졌다.
- 이번 사건은 연안에서 떠나면 EEZ 밖 공해상에서 일어난 특이한 사건으로, 공해상에는 연안국 해군의 보호를 기대할 수가 없어 이 해역에서 조업 중인 원양어선들은 해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에 우리 원양어선들은 가능한 출어 전 해군의 보호를 받는 항구 근처 안전한 해역에서 선박 연료를 받고 출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kl)	유종	조사일
양상급유	920달러	MGO	'23.4.30

라.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2,600
	~10kg	2,000
가다랑어	3.4kg~	1,600
	1.8kg~	1,450
	~1.8kg	1,300
	~1.5kg	1,200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



이재원
명예해양수산물

가. 참치 제품 경쟁력 개선 필요성 제기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물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참치, 가다랑어, 참치의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어획점유율이 약 15%이며, 그 뒤로 필리핀 7.3%, 베트남 6.6%, 에콰도르 6.1%, 순이지만, 인도네시아의 수출 순위는 세계 6위에 그쳤다.
- 해양수산물부 경제수역 및 해양수산자원 관리의장 Putuh Suadeld씨는 참치 관리 관련 문제점으로 확실한 조업선 수가 아직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 어획물 양륙 지점이 많고 로그북 작성률이 여전히 낮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 방안으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 어류 가공시설 및 물류 문제 및 참치 수출관세 문제 해결 등이 지목되었다.

나. 불법 조업 가능성 증가

-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여전히 불법 어업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업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상보안법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2년 불법 조업 사례, 미신고 및 미실행(IUU 어업)은 인도네시아의 해양 보안 위반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밀수 사건이 그 뒤를 이었다.
- 조정 어업감시관 Mohammad Abdi Suhufan씨는 정부가 어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uhufan 감시관은 금년부터 어획량 측정 정책을 시행하면 위반, 특히 미신고 어업이 증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신고 어업(신고되지 않은 어업)을 예상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어획량 신고가 규율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

가. 엘니뇨 영향 우려

- PNG의 주요 수산업종인 Gulf of Papua 지역 새우 어획이 지난 4월에 시작되었으나 예년 어획의 70%에 그쳐, 엘니뇨 현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 또한 엘니뇨의 영향으로 참치의 조업지가 금년 말에는 더 서쪽으로 옮길 것이라는 소식이 있어 PNG로서는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나. PNG 수산청의 변화

- 수산청은 새 청장의 지도하에 공격적으로 자국 수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는 무너졌던 자국 수산업 발전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관측된다.

다. 중국의 PNG 진출 시도

- 현재 중국인의 진출은 개인 및 국영기업의 두가지 형태로 수산업 진입을 하려는 모양새를 띄고 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접근으로 인해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중국으로 직접 수출되지 않는 호주의 활바닷가재 사업은 중국의 유화책으로 호주 정부의 수락 여부에 호주 사업자의 성패가 달려있으나, 호주 정부에서는 현재 중국의 접근을 무시한 정책을 이어 나가고 있으며, 전문가 파견을 통해 PNG 자체 수

산업자 발굴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나.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리터)	유종	조사일
TWL Logistics Ltd	\$0.8942	Diesel	'23.5.8

〈 게재순서: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





메로 칠리 파스타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메로 140g 1팩, 미나리 15줄, 스리라차 소스 1술, 올리브유 1술, 토마토소스 10술, 후추 약간, 생강맛술 1술, 복분자술 1술, 파슬리가루 약간, 랍스터 테일 110g, 모차렐라 치즈 50g, 청양고추, 올리브유 1술
- 소스: 생강맛술 2술, 복분자술 1술, 후추, 파슬리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손질한 랍스터에 모차렐라 치즈와 고추를 얹어 오븐에 20분간 구워준다.
- ② 메로, 미나리를 먹기 좋게 손질 후 메로를 특제 소스에 채워준다. 채워둔 메로를 팬에 토마토소스와 스리라차 소스를 넣어 볶아준다.
- ③ 파스타 면을 약 7분간 삶은 후 메로와 함께 비벼준다.
- ④ 미나리를 얹어 마무리한 파스타와 랍스터를 접시에 담아준다.



5월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월 대비 하락

5월 10일 기준 671 달러

국제유가는 미국 경기 침체 및 인플레이션 우려 고조,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으며, 미국 전략비축유 재구입 계획, 미국 석유 시추기 수 감소 등은 하락폭을 제한했다.

5월 15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4.01 달러, WTI 가격은 69.68 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73.76 달러를 기록하였다.

5월 10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벙커 가격은 톤당 680 달러로 4월 10일(760 달러) 대비 11% 하락하였다.

5월 평균(5.1~5.10) 가격은 671 달러로 전월 평균(4.1~30) 734 달러 대비 약 9% 감소하였다. 전년 4월(4.1~30) 평균과 비교해서는 43% 하락했고, 전전년 4월과 비교해서는 20%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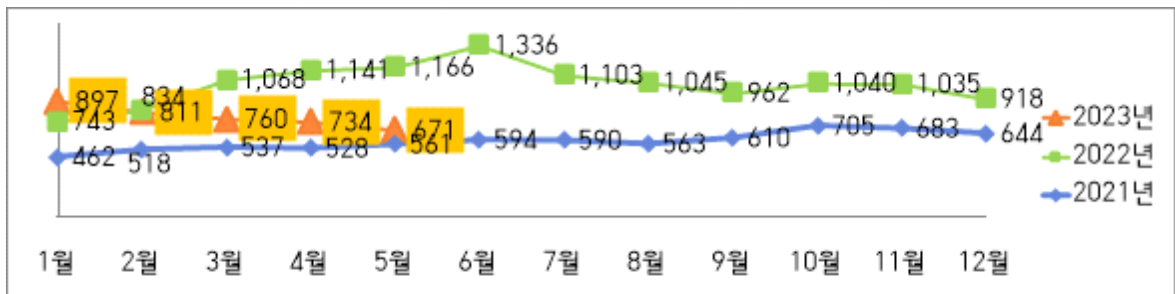
2023년 평균(1.1~5.10) 가격은 787 달러로 전년(1.1~12.31) 평균 대비 24% 하락하였고, 전전년 평균 대비 35% 상승하였다.

12일 예정됐던 미국 부채한도 관련 정치권 협상이 다음 주로 연기됨에 따라 미국 디폴트 우려가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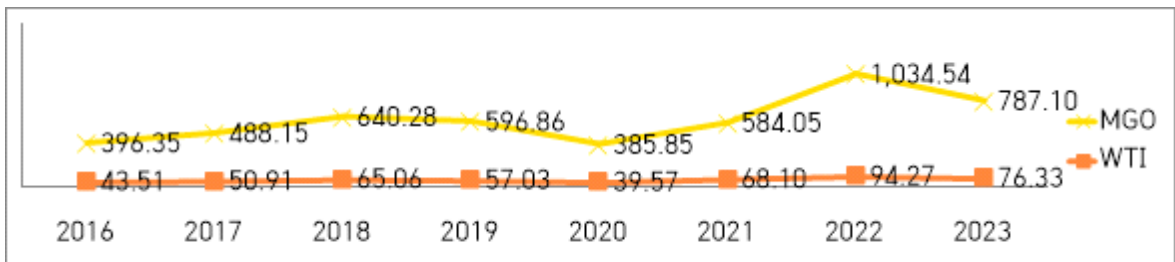
한편,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금리 인상·부채한도 협상 등 거시경제 이슈를 반영해 올해 유가 전망을 기존 배럴당 88달러에서 80달러로 하향했다. 씨티(Citi) 은행은 계절적 수요 증가·재고 감소·OPEC+ 감산으로 2~3분기 시장 여건 개선을 전망했다.

호주뉴질랜드(ANZ) 은행은 하루 200만 배럴 규모의 석유수요 증가 감안 시, 올해 잔여기간 공급부족을 예상했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하반기 대규모 공급부족 예상으로 올해 말 95 달러 유가 전망을 유지했다.

〈 월평균 싱가포르 벙커 가격 〉



〈 연평균 MGO 벙커, Brent, WTI 가격 〉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2,050 달러

지난 6년간 최고치

어획 부진, 최종 시장의 참치 통조림 재고량 증가, 태국 가공업체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태국 방콕 냉동 가다랑어 가격이 6년 만에 톤당 2,000 달러를 돌파했다.

방콕 냉동 가다랑어 원어 1.8kg 이상의 톤당 가격은 2,050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3월 말 대비 약 3% 상승한 수치이다. 태국 가공업체는 2,000 달러 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2,050 달러까지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으나, 중계업자와 선사는 치솟는 조업 비용을 충당하길 원하고 있다. 이들은 톤당 2,100~2,180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방콕 가공업체의 원어 매입은 시장 가격으로 인해 부진한 상황이다. 최종 구매자는 재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 주문을 서두르지 않고 관망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콕 가공업체는 원어 매입을 주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방콕 가다랑어 거래는 톤당 2,000~2,050 달러 선에서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 따라서 방콕 1.8kg 이상 냉동 가다랑어 원어 현물 가격은 톤당 2,000 달러로, 2주 전 보고된 금액 대비 약 3% 상승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4월 19일자

日 3월 냉동 눈다랑어 수입가, kg당 878 엔

2021년 8월 이후 처음으로 800엔대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참치류의 3월 수입실적은 선어·냉장 제품 수입량 423톤(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 수입액 8억 9,100만 엔(40% 증가), 냉동 제품 수입량 1만 1,863톤(1% 증가), 수입액 147억 2,300만 엔(3% 증가), 가공품 수입량 4,344톤(4% 증가), 수입액 34억 3,900만 엔(28% 증가)을 기록하였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 제품의 단가를 하락세를 이어갔다. 냉동 눈다랑어의 3월 kg당 단가는 878 엔(9% 하락)이며, 이 중 수량이 가

장 많은 대만산의 단가는 kg당 880 엔(9% 감소)을 기록하였다. 눈다랑어 단가가 800엔대를 기록한 것은 2021년 8월(846 엔) 이후 처음이다.

한편 도쿄 도요스시장에 입하되는 냉동 눈다랑어 가격은 올해 들어 하락세이다. 냉동 눈다랑어 상장 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경·태평양산의 중가(中値: 가장 거래량이 많은 가격)는 kg당 1,174 엔(0.5% 하락)으로, 12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 추세이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4월 14일자, 5월 9일자



중서부태평양 3월 전재량 소폭 증가

총 3만 7,353톤...6% 증가

3월 중서부태평양 참치 어획량이 다소 증가하면서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항구의 3월 전재량 또한 소폭 증가하였다. 마이크로네시아는 특히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PNA 항구의 3월 전재량은 6% 증가한 3만 7,353톤으로, 2월 전재량 대비 701톤 증가하였다. PNA 항구의 전재량은 2022년 12월부터 감소하여 2월에는 최저점에 도달하였다. 다른 연도의 3월 전재량은 훨씬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3월의 소폭 증가만으로는 아직 상황 호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어업 노력은 중서부태평양 서부에 집중되었으며, 공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팔라우에서 증가하였

다. 파푸아뉴기니(PNG)의 어업 노력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의 46%를 차지하였다.

PNG의 일일 평균 전재량은 23.6톤으로 가장 많았다. 마이크로네시아의 일일 전재량은 18톤으로, 전체 전재량은 전월의 약 3배인 1만 6,062톤이었다. 전체 물량의 약 43%는 Pohnpei항과 Kosrae항에서 전채되었다. PNG는 4개월 연속으로 전월 대비 전재량이 감소하면서 3월 총 전재량은 1만 5,000톤을 넘는 수준을 기록하였다. 다른 PNA 국가들도 일일 전재량이 다소 개선되었으나(키리바시, 나우루 14톤, 솔로몬제도 18톤) 총물량은 전월 대비 감소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4월 25일자

동부태평양 1분기 참치 어획량, 10년 만의 최대치

약 19만 5,748톤

2023년 첫 3개월 동부태평양 참치 어획량은 가다랑어 어획량 증가에 힘입어 12% 증가하였다.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이하, IATTC)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첫 1분기 동안 참치 어획량은 약 19만 5,748톤으로 10년 만의 최대치이다. 가다랑어 어획량은 10만 6,360톤으로, 마찬가지로 10년 만의 최대치이다. 어획량의 대부분은 에콰도르 선망선단이 어획한 것으로, 전년 대비 1만 5,694톤 증가한 6만 5,312톤을 어획하였다. 황다랑어 어획량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멕시코 선단 황다랑어 어획량은 20% 증가한 3만 8,498톤이며, 타 어종의 어획량은 큰 변동이 없었다.

황다랑어의 전체 어획량은 파나마와 베네수엘라 선단 어획량 감소로 4% 감소하였다. 파나마 선단은 9,046톤(전년도 1분기 대비 감소)을 어획하였고, 베네수엘라 선단은 45% 감소한 5,865톤을 어획하였으나, 이 중 가다랑어 어획량은 859톤에 그쳤다.

기타 범주(콜롬비아, 페루, 니카라과, 미국, EU-스페인) 선단의 가다랑어 어획량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2만 608톤이며, 황다랑어 어획량은 394톤 증가한 7,571톤이다. 한편, 가다랑어 어획량 증가로 인하여 FAD 부수어획물인 눈다랑어의 어획량 또한 27% 증가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5월 8일자



日, 3월 냉동 참치류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냉동 눈다랑어 수입량 126톤

〈 2023년 3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날개다랑어	한국	-	96	99
	대만	27	4	281
	바누아투	-	1	131
	기타	105	42	3
	소계	133	144	396
황다랑어	한국	173	217	262
	중국	54	338	265
	대만	1,295	1,668	1,245
	필리핀	987	245	74
	인도네시아	26	94	164
	미국	-	-	-
	바누아투	56	168	400
	피지	16	12	28
	키리바시	4	2	13
	마셜제도	180	1	197
	기타	1,662	692	3,465
	소계	4,453	3,437	11,209
눈다랑어	한국	84	136	126
	중국	136	373	949
	대만	1,717	1,538	2,639
	필리핀	-	-	-
	인도네시아	1	30	8
	세이셸	562	280	137
	바누아투	41	309	484
	기타	36	82	40
	소계	2,578	2,748	4,385
남방참다랑어	한국	-	132	132
	대만	6	10	21
	호주	-	-	-
	소계	-	-	-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5월 9일자



NOAA 엘니뇨 주의보, 태평양 참치 어업에 화재 수온 상승으로 참치종 이동 촉진 예상

미국 해양대기청(이하, NOAA) 5월 1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적도 해수면 온도(이하, SST)'는 4월 이후 태평양 대부분의 수역에서 평균~평균 이상 수준이다. 북반구 봄철(Northern Hemisphere spring, 3월 20일경~6월 21일경)까지 엘니뇨 중립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5~7월 사이 엘니뇨가 발생하여 참치종의 이동을 촉진할 확률이 62%로 예상된다.

지난 4주간 에콰도르와 페루 연안 근처 등 동, 서부 태평양에서 긍정적인 SST 이상 현상이 지속되었다. '엘니뇨 현상에 대한 국가연구다부문위원회(이하, Enfen)'는 엘니뇨 '경계 상태'를 유지하였다. 전문가들은 페루 수역의 참치 자원이 어업자들에

게 있어 특히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필리핀 참치업계는 자국 수산·해양자원청이 엘니뇨로 인하여 자국 수역에 참치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 전문 매체 Mongabay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엘니뇨 및 라니냐 발생 여부에 따른 어획량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400만톤 이상이다. 엘니뇨 및 라니냐로 인한 어획량 변화의 대부분은 태평양 어업에서 발생하나, 대서양과 인도양의 참치 이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서는 설명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5월 5일자

만타 가다랑어 가격, 톤당 1,850 달러 몇 주간 가격 유지, 상승 예상

에콰도르 만타의 냉동 가다랑어 원어 1.8kg 이상 가격은 톤당 1,850 달러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가공업체는 50 달러 낮은 가격에 거래를 체결했고, 다른 가공업체 중에서는 1,900 달러에 매입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월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방콕 가다랑어 가격이 만타 가격을 넘어선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원어를 구매할 이점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만타 가다랑어 가격은 올해 들어 최고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가격이 수개월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일부 소식통은 이로 인해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다른 소식통들은 재정적 압박을 불렀다고 전하였다. 어업자들은 작년보다 어획량이 다소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나, 가격대를 낮추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2022년과 비슷한 추세가 관측되기 때문에, 소식통은 앞으로 몇 주 동안 가격이 유지되거나 심지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출처: Atuna, 2023년 4월 18일자



EU, 인도양 참치 선박에 공해상 검사관 승선 제안 검사관, 사무국 역할 및 절차 제안

EU가 5월 개최될 IOTC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 예정인 '공해 승선 및 검사(이하, HSBI)' 계획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지난주 EU는 2024년 시행 예정인 IOTC FAD 금어기 조치에 이의제기한 후 IOTC 참치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4가지 포괄적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HSBI는 새로운 사안이 아니며, 최신 문서는 작년 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된 권고안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2022년 타 대표단의 의견, 제안을 고려하여 수정되었다. 최신 제안서에서는 공해상 승선 제도의 목적을 강조하고 물리적 점검을 담당하는 기관을 명시하는 등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했다. 또한 IOTC 웹사이트의 공개 및 접근 대상 제한 페이지에 게시할 정보를 정의하고 있다.

EU에 따르면, HSBI는 안전하고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수행되는 절차 및 검사 활동에 대한 포괄적 계획을 제공한다. 당국은 IUU 선박 목록에 등재되어 있거나, IUU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선박을 우선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회원국이 타국 국적선에 검사관을 승선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HSBI를 통해 점검을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는 IOTC 사무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IOTC 당사국은 모든 조사관이 적절한 교육을 수행하였고, 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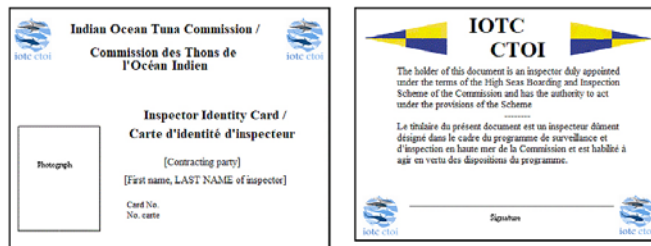
활동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발급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사원의 업무는 RFMO의 조치에 따른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모든 검사는 선장의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EU는 조사관이 소지할 수 있는 신분증에 대한 예시도 제시하였다. (하단 사진 참조)

조사관은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국가 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당국은 해당 정보와 증거를 기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경고받은 회원국은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조업을 중단하고, 취해진 조치를 포함, 모든 세부 사항을 IOTC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에 따르면 IOTC 사무국의 역할은 위원회가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를 구축, 유지, 관리하고 IOTC 웹사이트의 공개 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다. 사무국은 기국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한 표준화된 다국어 질문서를 선박 연락 용도 및 승선, 검사 활동 수행에 사용하여 검사관과 검사대상 선박 선장 및 선원 간의 의사소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작업에 대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RFMO 웹사이트 접근 대상 제한 페이지에 보관하여야 한다.

* 출처: Atuna, 2023년 4월 19일자



(IOTC 공해상 승선 검사관 신분증 예시)



지원선 제한, EU의 IOTC FAD 조치 반대 사유 중 하나

“지원선 활동 및 FAD 사용, 선망어업 노력의 일부” 주장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의 FAD 72일 금지기 안에 대한 EU의 이의 제기 사유 중 하나가 지원선(supply vessel)의 운영 제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EU는 IOTC의 FAD 금지 규정을 거부하는 서한과 함께, FAD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제안을 포함하여 몇 가지 제안을 제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EU는 FAD 금지 규정에 있는 지원선 척수 및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이의 제기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EU 측은 또한 이 조항이 부유형 FAD(dFAD)를 회수하는 데 있어 지원선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며, 선망어업의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저하한다.

5월에 열리는 IOTC 연례 회의를 앞두고 EU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지원선 활동과 dFAD 사용은 선망어업 노력의 일부를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는 지원선을 FAD 회수 활동까지 포함하여 선망어업 노력의 일부로 간주한다. IOTC는 서류상으로 조업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았으나, 2019년과 2021년 황다랑어 자원 복원 결의안에서는 지원선이 선망어업 노력, 어획 능력,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IOTC 사무국은 황다랑어 자원 증대를 위해 인도양에서 지원선 감축을 여러 차례 제안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4월 13일자

ISSF, 인도양 참치 FAD 관리조치 개선 요구

회원국 규제 미준수, 보호종 보존조치 등 해결 촉구

국제수산물지속가능재단(이하, ISSF)이 5월 8~12일 동안 개최될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 연례회의를 앞두고, IOTC에 회원국들의 규정 미준수 문제 및 FAD 관리·보존 조치 개선을 재차 촉구하였다.

ISSF는 상어, 고래류, 바다거북 개체수 보호 목적의 더 강한 보존 조치 채택, FAD 관리 개선, 회원국 규정 미준수 문제 등의 사안 해결을 IOTC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ISSF는 또한 최근 IOTC 과학위원회 권고에 따

라, 황다랑어 어획량을 2020년 대비 최소 22% 감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2023년 가다랑어 어획량이 관련 어획량 관리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넘지 않게 하고, 눈다랑어 어획량도 관리 조치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ISSF는 IOTC에 전자모니터링 용어 및 정의, 프로그램 표준, 데이터 표준의 채택을 IOTC에 요구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5월 2일자



퓨 재단“인도양 참치자원 개선 위해 근본적 변화 필요”

규정 준수 조치, 어업 감독 및 절차적 논의 개선 필요

비영리재단 ‘퓨 자선재단(Pew Charitable Trust)’의 국제 어업 프로젝트 책임자 Glen Holmes는 웹사이트를 통해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에 대해 이하와 같은 의견을 게재하였다.

“5월 8일부터 12일까지 모리셔스에서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더욱 강력하고 공평한 어업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황다랑어와 가다랑어에 대한 관리를 현대화하여 진전을 이루고 참치 선단에 대한 오피서버 범위 확대와 전자 모니터링에 전념해야 한다.

선박이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거나 위반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관리자들은 어족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

고무적인 것은 유럽연합이 현재 구조를 크게 개선하여 다른 RFMO와 글로벌 규정 준수 전문가들의 권고에 부합하는 IOTC 규정 준수 시스템 개정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IOTC는 연승 선박의 5%만 선상 오피서버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학자들이 관리자가 해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하는 20%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정확한 자원 평가 또는 보존 및 관리 조치 평가를 위한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기에 IOTC는 2025년까지 오피서버 참여율을 5%에서 20%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20% 목표를 달성하고 감독을 더욱 확대하고

오피서버 커버리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IOTC는 어획량, 부산물, 어업 노력 및 규정 준수를 더 잘 평가할 수 있는 기술로 인적 오피서버 커버리지를 보강하는 비용 효율적인 전자 모니터링(EM) 프로그램을 수용해야 한다. IOTC 실무 그룹의 회원들은 회원 선단에서 이러한 시스템의 사용을 확대하고 해상에서 오피서버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EM 표준을 제안하였다. 위원회는 이 제안을 채택해야 하며, 이는 전 세계 참치 RFMO 중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관리자들은 2016년에 합의된 이후 매년 30%씩 초과하고 있는 가다랑어 어획량 제한을 시행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IOTC는 공식적으로 어획량 할당에 합의할 때까지 임시 규정을 통해 기존 어획량 제한을 더욱 명확하게 시행해야 한다. 이는 가다랑어 관리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당 시스템과 상당한 어획량 감축이 필요한 인도양 참다랑어에 대한 향후 관리의 모범이 될 수 있다.”

* 출처: 퓨 자선재단, 2023년 4월 20일자





프랑스, 인도양 FAD 조치에 반대

차기 IOTC 위원회에서 위원회 정신에 부합한 합의 필요

프랑스가 인도양에서 참치 선망 어선의 표류성 어류 집어 장치(dFAD) 사용을 제한하는 결의안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결의안 23/02는 인도양에서 72일간 dFAD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였다.

프랑스는 이 결의안에 규정된 보존 및 관리 조치가 과학적 조연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결의안이 위원회의 정신에 부합하는 합의에 의한 결정이 아니었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IOTC에 보낸 서한에서 밝혔다.

EU는 5월 IOTC 회의에서 '허점 해결'을 목표로 수정된 참치 관리 조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결의안 23/02의 문구에서 분실된 FAD는 결의안에 명시된 제한에 따라 FAD 등록부에서 삭제하고 새 FAD로 교체할 수 있다.

EU 대표는 결의안의 문구가 모호하고 이중 해석을 초래할 수 있어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으며, "IOTC는 합의가 아닌 다수의 길을 따름으로써 불명확하고 불공정하며 여러 측면에서 실행 불가능한 문안을 채택하였다. 다음 IOTC 회의는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하고 인도양에서의 dFAD 사용을 위해 일관되고 과학에 기반한 효과적인 관리 체제를 채택할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4월 19일자

NGO "인도양 선단, 조업 후 FAD 회수해야" 주장

FAD에 추적장치 설치 추진

지난 20일 동안 세이셸 수역에서 24개의 FAD를 회수한 NGO 'Oceanika'는 참치 선단에 조업 후 FAD 회수를 촉구하였다.

연안에서 FAD를 제거하는 것은 NGO 및 환경 보호론자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Oceanika 대변인은 세이셸 수산청 및 어업 회사들과 접촉해왔으며, 이들이 이 문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추적 장치를 FAD에 설치하여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회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하였다.

Oceanika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바다에 나가서 장치에 부착된 부표(buoys)를 찾아야 하나,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고 놓치기도 쉽다."라고 말하였다.

세이셸의 '섬보존협회(Island Conservation Society)'와 '섬개발기업(Island Development Company)' 또한 해양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 솔루션 기업 'Brikole'과 'WASTE'도 해당 임무에 동참하고 있다.

* 출처: Atuna, 2023년 4월 17일자



EU, 2022년 자숙 로인 국가별 수입 내역 발표

에콰도르, 중국 1, 2위

EU의 2022년 참치 자숙 로인이 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입량 대폭 증가를 이룬 가운데, 중국이 유럽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EU에 가장 많은 자숙 로인을 판매한 국가 1, 2위인 에콰도르와 중국의 수출량은 각각 4만 6,186톤, 3만 1,541톤으로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에콰도르산 로인의 EU 수출량은 연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평균 수출 가격은 1분기 톤당 4,996 유로에서 2022년 말 톤당 5,837 유로로 급등했다. 이들의 EU행 수출 가격은 2021년 대비 26% 높다.

중국이 2022년 EU에 수출한 로인 3만 1,541톤 중 대부분의 거래는 면세 쿼터 규정이 적용되는 1분기에

이루어졌으며, 2~4분기 수출량은 4,362톤에 불과하였다. 중국산 로인의 EU 수출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22% 상승한 톤당 3,915 유로(약 4,280 달러)이며, 약 90%가 무관세였다.

인도네시아가 2022년 EU에 수출한 로인의 양은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한 1만 1,414톤이다.

파푸아뉴기니(이하 PNG)가 EU에 수출한 로인의 양은 1만 9,753톤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하였고, 수출 가격은 27% 상승한 톤당 5,608 유로이다. 반면 필리핀산 로인의 EU행 수출량은 9,838톤으로 가격이 37% 상승한 영향으로 인해 6% 감소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4월 12일자

EU 2022년 자숙 로인 수입, 기록적 증가

수입량 18만 5,165톤

유럽은 2022년 총 18만 5,165톤의 자숙 로인을 수입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제품 톤당 가격은 23%나 급등하였다.

어종별로는 가다랑어 로인 수입량이 11만 1,110톤으로, 수입 단가가 전년 대비 톤당 983 유로가 더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황다랑어 로인 수입량은 6만 1,393톤으로, 수입 단가가 톤당 923 유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수입량을 달성하였다.

스페인 가공업체들의 가다랑어 로인 수입량은 2021년 감소한 이후 2022년에 7만 840톤으로 8%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로인 단가가 톤당 4,794

유로로 29%나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

프랑스의 가다랑어 로인 수입량은 8,158톤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포르투갈의 수입량은 8% 감소한 1만 1,493톤이다.

한편, 스페인의 2022년 황다랑어 로인 수입량은 약 5,300톤 증가한 3만 394톤으로, 전년도 1위인 이탈리아를 제치고 1위 수입국이 되었다. 이탈리아의 수입량은 2만 6,617톤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날개다랑어와 눈다랑어를 포함한 기타 로인 부문의 수입량은 1만 3,112톤으로 6% 증가하였으나 수입 단가는 톤당 5,594 유로로 23% 상승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4월 13일자



EU 2022년 로인 수입, 처음으로 원어 수입 추월

원어 수입 16만 6,972톤, 로인 수입 18만 5,615톤

EU 가공업체들은 냉동 참치 원어 매입을 줄이는 추세이다. 2022년에는 EU의 지속 로인 수입이 원어 수입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EU 가공업체들은 2022년 16만 6,972톤의 원어를 구매했다. 이는 2021년 대비 9% 감소한 수치이다. 원어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33% 상승한 톤당 2,816 유로로,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원어 가격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229 유로에서 2,114 유로 범위를 유지했다. 다만 전체 수입량의 63%가 톤당 3,246 유로인 고가의 황다랑어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원어 수입량은 5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2022년 EU 지속 로인 수입량은 18

만 5,615톤으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수준을 달성했다.

2022년 EU에 가장 많은 원어를 공급한 국가 1, 2위는 평년대로 세이셸(2만 7,048톤)과 스페인(2만 4,043톤)이다. 세이셸산의 톤당 가격은 53%나 상승한 2,607 유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은 16% 증가했다.

프랑스산은 2021년에 전년 대비 2,000톤 가까이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35%나 감소한 7,711톤에 그쳤다. 프랑스 선단은 2019년 수출량인 2만 6,000톤에 비해 지난 몇 년 동안 수출량이 많이 감소했다.

* 출처: Atuna, 2023년 4월 18일자

해바라기유·콩기름 가격, 계속해서 하락세

4개월 연속 급락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식물성 기름 10가지(해바라기유, 콩기름 포함)의 평균 가격 지수는 131.8포인트로 2월 대비 3% 하락하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48%나 하락하였다. 글로벌 콩 가격 하락 추세로 인해 글로벌 콩기름 가격 또한 하락세를 보인다. 해바라기유 가격도 세계적인 수입 수요 감소 추세로 인해 계속 하락 중이다.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미국으로부터 유럽 참치 통조림 업체가 구매한 콩기름의 3월 단가는 톤당

1,006 달러로 2월 대비 약 150 달러 하락하였다.

EU의 주요 해바라기유 공급국인 우크라이나는 3월에 전월 대비 12% 하락한 톤당 895 달러(826 유로)의 단가로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유럽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가격은 소폭 하락하였다. 국제올리브협회에 따르면 3월 스페인 Jaen 지방의 톤당 평균 가격은 5,190 유로, 이탈리아 Bari의 가격은 톤당 6,030 유로였다. 이는 전월 대비 각각 1.6%, 1.1% 하락한 수준이다.

* 출처: Atuna, 2023년 4월 14일자



美, 태평양 도서국 MPA 확장 계획 착수

NOAA 의견 수집 회의 개최 예정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지난 3월 백악관에서 발표한 태평양 도서국 해양보호구역(이하, MPA) 확장 계획의 절차에 착수하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의한 제안에 따르면, 국립 해양보호구역법(National Marine Sanctuaries Act)에 따라 7만 7,000제곱마일의 면적을 포함하는 새로운 보호구역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보호구역에는 미국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보호되지 않은 육지와 수역이 포함되며, 이는 2030년까지 육지와 수역의 30%를 보존 지정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일환이다.

지정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다. NOAA는 온라인 참석도 가능한 대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2023년 6월 2일까지 공개적으로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경계, 양립 가능한 사용, 새 보호구역이 해결해야 할 위협, 해양과학교육 이니셔티브 및 기타 주제를 알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 NOAA의 목표이다.

다만 백악관의 이러한 결정은 다수의 태평양 도서국 및 어업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출처: Atuna, 2023년 4월 24일자

태평양 도서국 참치 조약, 美 의회 대립으로 난항

10년간 6억 달러 지원...조건, 내용 등 변경 가능성 존재

태평양 도서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가을 약속한 참치 조약 지원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2022년 9월, 바이든 대통령은 태평양파트너십전략(이하, PPS)을 발표하고 태평양 도서국에 약 8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 재정 지원에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남태평양참치조약(미국 선망선의 16개 태평양 도서국 EEZ 조업을 허용하는 조약, 이하, SPTT)을 위하여 약속한 6억 달러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안서에서 참치 조약

갱신을 위한 6억 달러의 증가한 원조는 10년에 걸쳐 지급되는 것으로 약속되었다. 이는 연간 6,000만 달러 수준으로, 현재의 지원금 대비 약 3배 증가한다.

그러나 해당 지원안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국 의회로부터 승인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PPS의 차후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참치 조약이 거부되거나, 규모가 감소하거나, 조건이 조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출처: Atuna, 2023년 5월 1일자



젤리 FAD, 해상 시험 단계 돌입

해양오염, 유령 어구, 해양생물 얽힘 문제 해결 목표

대만 수산그룹 FCF社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WCPFC)의 과학 서비스 제공자인 태평양공동체(The Pacific Community, 이하, SPC)와 협력하여 젤리 FAD 실험의 해상 시험 단계에 들어갔다.

비영킹, 생분해성 FAD인 젤리 FAD는 국제수산물지속가능성재단(ISSF)에서 개발하여 협력 선박에 배포했고, 실제 조업 환경에서의 사용,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해 사용 중이다.

이 시험은 10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장치의 성능과 내구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해양친화적 부유형 FAD의 개발과 사용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2년 9월에 시작되었으며, 올해 2월에 FAD 제작이 완료되었다.

4개의 선망 부유물(float)과 음향 측심 부표(echo sounder buoy)를 제외한 젤리 FAD의 모든 장치는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되었다. 크기를 줄이고 그물을 제거하여 해양 오염, 유령 어구(ghost gear), 해양생물 얽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시험 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는 SPC와 ISSF 과학자들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하며, 최종 결과는 논문 또는 세미나를 통해 WCPFC를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보고 및 공유 예정이다.

* 출처: Fiskerforum, 2023년 4월 19일자

ISSF 연례 감사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규정을 준수

요건 준수율은 99.75% 달성

국제수산물지속가능성재단(ISSF)은 25개 참치 가공 및 무역업체에 대한 연례 감사를 완료했으며, 회원사 요건 준수율이 99.75%에 달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25개 업체 중 23개 업체가 ISSF의 33개 지속 가능한 어업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체명이 확인되지 않는 2개 업체는 동일한 제품 라벨링 조치에서 경미한 적합을 보였다고 밝혔다.

ISSF의 요구사항에는 완전한 공급망 추적성 입

증, 분기별 구매 데이터 제출, 상어 혼획에 관여하는 선박과의 거래 피하기, 혼획 감소 모범 사례를 사용하는 선망 및 연승 선박에서만 구매하기, 불법·비규제·미보고 어업 목록에 있는 선박과의 거래 피하기 등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타이유니온 그룹, 볼튼 그룹과 그 자회사인 트라이 마린, 범블비 푸드, 스타키스트, 프린스 등이 포함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4월 21일자



참치, 기후 변화 영향이 적은 단백질 공급원

식품별 기후 변화 영향 비교하는 '바나나 지수' 통해 증명

최근 '이코노미스트'誌는 바나나, 참치, 기타 수산물, 육류, 채소 등을 3가지 지표(1kg당 배출량, 열량, 단백질 함량)로 비교한 '바나나 지수(Banana Index)'를 소개했다.

참치는 모든 분석 기준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단백질 공급원 중에서 특히 적은 편이다. 이 지수는 물 사용, 토지 이용, 비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를 모두 평가에 반영했다면 참치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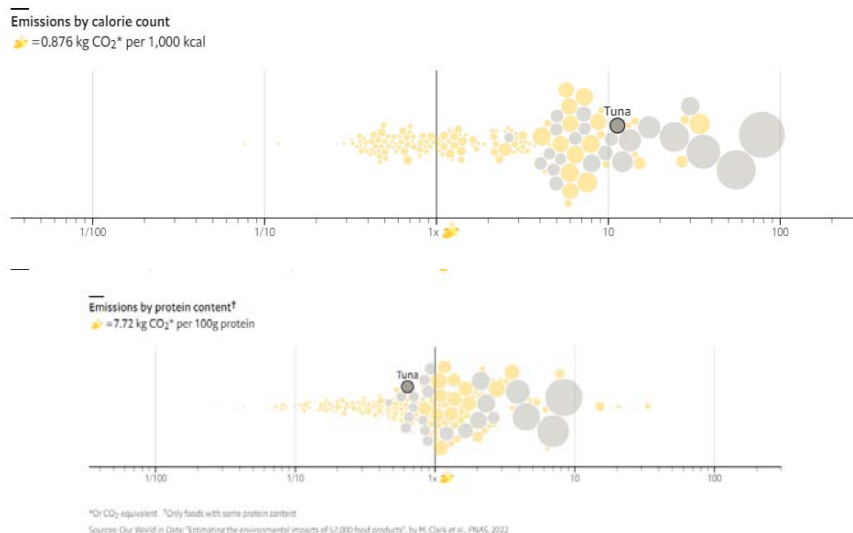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단일 식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수화하면 식재료의 순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다.

무게로 환산할 경우, 참치 1kg을 생산할 때 바나나 15kg을 생산하는 것과 같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열량과 배출량을 비교할 경우, 참치 어획 및 생산에는 바나나 생산보다 11배 더 많은 배기가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수의 최상위인 소고기 햄버거를 만드는 데는 바나나보다 약 100배나 많은 배기가스가 필요하다.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참치는 바나나보다 탄소 친화적 식품으로 평가된다. 바나나는 단백질 100g당 7.72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반면, 참치는 바나나 대비 85%에 불과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 출처: Atuna, 2023년 4월 20일자



(참치의 열량 기준, 단백질 함유량 기준 바나나 지수 도표)



신형 오메가-3, 알츠하이머 환자 시력 저하 예방

망막 투과 형태의 신형 오메가-3 성분

신형 오메가-3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시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

시카고 일리노이대학 의학과 연구진은 망막을 투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오메가-3 성분 DHA를 개발하였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발병 시 나타나는 증상을 보이도록 사육한 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쥐에게 6개월간 투여된 보충제의 용량은 사람이 일일 약 200~500mg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 참치에는 100g당 1.6g의 오메가-3가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험 결과, 쥐의 망막 DHA 수치는 96% 개선되었으며 망막 구조는 보존되었다. 이러한 기능 개선은 실험에 쓰인 것과 동일한 보충제가 알츠하이머 및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기타 질환을 앓는 사람의 시각 장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새로운 유형의 오메가-3 DHA는 혈류에서 망막으로 들어간다.

현재의 보충제의 문제점 중 하나는 DHA가 망막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장에서 흡수된 다음 혈류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망막에서 DHA를 증가시키는 것은 지금까지는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보충제는 장과 혈액-망막 장벽을 모두 극복한다. 다만 사람이 해당 오메가-3 보충제 섭취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 및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건강 전문지 Healthline은 보도했다.

* 출처: Atuna, 2023년 4월 26일자

세이셸, 선단 활동 디지털 모니터링 기술 도입

스페인 Satlink社 소프트웨어 채택

세이셸 정부가 참치 선단의 활동을 디지털 방식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스페인 Satlink社의 기술을 채택하였다. 세이셸 선망선단에 설치될 소프트웨어인 Satlink Seatube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IUU 활동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Satlink社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의 선박 280여 척에 설치된 해당 소프트웨어가 수년간 세이셸 수산청(이하, SFA)에 고급 분석 데이터를 제

공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테스트는 2021년에 시작되었으며 세이셸은 2026년까지 해당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Satlink社에 따르면 이 기술은 선박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획물의 구성, 혼획물의 목적지, 조업 구역 등의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 출처: Atuna, 2023년 5월 1일자



참치 포럼, 노동자 권리 지침 초안 발표

UN 원칙 등 국제협약 공통 요소 재강조

해양관리협의회(MSC), 그린피스, 글로벌참치연맹, 환경정의재단, 푸 자선재단, ISSF, WWF 등 다수 NGO가 참여하는 ‘참치 포럼(Tuna Forum)’이 전세계 참치 어업 노동자 권리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참치어업, 가공, 무역, 소매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인권 및 노동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 및 다양한 국제협약의 공통 요소를 재강조하는 것이다.

참치 공급망에서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정책, 요건, 조치와 참치 선박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은 이하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①법률 및 원칙 ②노동권 정책 ③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UN 기본원칙에서 유래된 용어로, 기업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 방지, 완화하고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하는 일련의 절차) 프로세스 ④예방 및 구제 조치 등 각 요소에 대하여 준수하거나 따라야 할 일련의 권장 사항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는 기업이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제공된다.

* 출처: Atuna, 2023년 4월 24일자

동원수산한성기업, 태평양 연승어업 MSC 인증 청신호

인증 평가 3가지 원칙 모두 80점 이상 평가

적합성평가기관인 영국의 Control Union社가 동원수산과 한성기업의 태평양 눈다랑어,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연승어업이 MSC 인증을 받기에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해당 평가의 보고서 초안은 4월 14일 발표되었다.

보고서 초안은 부산항을 거점으로 하는 15척의 연승선과 4개의 평가단위(중서부태평양 황다랑어, 중서부태평양 눈다랑어, 남태평양 날개다랑

어, 북태평양 날개다랑어)를 대상으로 한다. 보고서는 대상종, 생태계 영향, 관리 시스템 등 3가지 원칙에서 모두 80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해관계자는 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마감일은 2023년 5월 9일 오후 5시(협정 세계시각)이다.

* 출처: Atuna, 2023년 4월 21일자



에콰도르 선망어업, MSC 인증 확대 추진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선망어업 인증 초안 발표

적합성평가기관인 LRQA가 4월 18일 동부태평양 에콰도르 열대 참치 선망어업에 대한 의견 초안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어업은 기존의 황다랑어 어업 MSC 인증을 가다랑어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다.

해당 인증을 추진하는 그룹은 11척의 선망선을 보유 중이며 1척은 건조 중이다. 모든 에콰도르 국적선은 주로 에콰도르 EEZ에서 조업하지만, 갈라파고스 해양보호구역(이하, MPA)과 같은 특정 MPA 외부에서도 조업한다.

이 중 9척은 대형(길이 40.4~65.4m) 선망선으로 적재 용량이 363톤 이상이다. 나머지 2척은 32.56m

와 36.66m의 소형 선망선이다. Dona Lucia 호는 1,162톤의 용량을 갖춘 현대식 선망선이다.

점점 성과지표 점수에 따르면 해당 어업은 MSC 기준을 충족하며, 원칙 1에서 80점 이상을 받았다. 원칙 2, 3은 아직 평가되지 않았으나 해당 어업의 기존 황다랑어 인증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LRQA는 MSC 인증 범위 확대 요건에 따라 어업을 평가한 결과 인증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해관계자는 5월 17일 오후 5시(협정 세계시각)까지 ACDR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출처: Atuna, 2023년 4월 24일자

FCF社 태평양 눈다랑어 선망어업, MSC 인증 취득

가다랑어, 황다랑어 재인증

대만 FCF社의 서부태평양지속가능참치연맹(이하, WPSTA) 어업이 눈다랑어 어업에 대한 해양관리협의회(이하, MSC) 인증을 취득하였다. 해당 어업은 기존의 가다랑어, 황다랑어 어업에 대해서도 재인증을 취득하였다. 심사 과정을 관리하는 적합성평가기관(이하, CAB)은 어떠한 이의 제기도 받지 않았다.

WPSTA는 2018년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황다랑어 어업에 대해 MSC 인증을 취득하였고, 최

근 눈다랑어 어업까지 인증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총 11척의 새로운 선박이 인증 대상에 추가되었다. 이들은 모두 대만 국적선으로, FAD와 스쿨조업 모두 가능하다.

총 21척의 중국 및 대만 국적 선망선이 해당 그룹 속해 있으며, 중서부태평양 공해 및 나우루협정당사국(PNA) EEZ에서 조업한다.

* 출처: Atuna, 2023년 4월 13일자



2023년 1~2월 베트남산 참치 英 수출, 3배로 증가 특혜 관세 쿼터에 따라 수출액이 130만 달러 이상을 기록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생산자 협회(VASEP)에 따르면 광범위한 인플레이션과 구매 선택의 변화로 인해 2023년 첫 두 달 동안 영국으로의 베트남 참치 판매가 급증하였다.

베트남에 대한 참치 수출액은 급증하여 첫 두 달 동안 130만 달러로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거의 세 배에 달하였다.

베트남의 대영국 수출품 중 압도적인 비중(93%)을 차지하는 품목은 상품 코드 HS0304의 냉동 로 인이다. 작년에는 전반적인 가격 상승에 힘입어 수출액이 약 10% 증가하였다.

2월 중 영국의 인플레이션율은 10.4%로 가속화되어 국가의 구매 경향이 바뀌고 저렴한 냉동 및 가공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였다.

또한 1월 중순, 영국 정부는 베트남이 새로운 개발도상국 무역 제도가 발효될 때까지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수혜국으로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영국-베트남 자유 무역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특혜 관세 할당량을 활용하여 영국 수입업자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베트남 참치를 구매하고 있지만 에콰도르, 모리셔스, 세이셸이 여전히 가장 큰 공급국가로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베트남은 여전히 영국에서 13번째 수입 참치 공급국에 불과하다고 VASEP은 밝혔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4월 17일자

베트남, IUU 규정 준수에 대한 네 번째 EC 점검 준비 EU 옐로카드 해제 목적

베트남 중부 연안 푸옌성의 수산업계와 지역 당국은 선박의 움직임과 조업 일지를 모니터링하는 등 참치어업에서 IUU 어업 방지를 위한 법적 규정을 완전히 이행하였다. 이는 4월 19일 베트남 당국이 실시한 점검의 결론이다.

베트남 당국은 베트남이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적절히 노력하고 있으며 EU 옐로카드 해제를 위

한 EC의 권고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이다.

Vietnam Plus지에 따르면 푸옌 당국은 2022년에 EC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50척의 선박 소유주를 단속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4월 21일자



MSC, 글로벌 수산물 미래 포럼 참석

지속가능한 참치와 수산물로 세계 인구를 먹여 살려야

지속 가능성과 "blue transformation(푸른 전환)"은 2023년 수산물 글로벌 엑스포 둘째 날에 MSC가 주최한 "글로벌 수산물 미래 포럼"의 주제였다.

루퍼트 하우즈(Rupert Howes) MSC CEO는 2048년까지 9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식량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해양 어획과 양식 모두에서 지속 가능한 수산물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 어획량의 1/3 이상을 MSC 인증 또는 참여 어업에서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수산물 시장을 육성·확대하는 목표를 강조하였다.

포럼의 기조 연설자인 마누엘 바라지(Manuel

Barange) 유엔식량농업기구 수산양식국장은 전 세계 인구에게 해양 및 양식의 수산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참치를 비롯한 수산물은 단백질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요오드부터 칼슘까지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영양실조 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한다고 강조하였다.

니콜라스 귀촉스(Nicolas Guichox) MSC 최고 프로그램 책임자는 유엔의 이니셔티브인 '블루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MSC의 기여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296만 톤의 어획량이 MSC에 참여하거나 평가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4월 26일자

최신 연구, 대서양 황다랑어 미세플라스틱 문제 경고

대형 플라스틱 영향은 적은 편

국제 미세플라스틱 프로젝트 'MicroplastiX project'를 통해 참치 및 대형 원양어종의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맛줄 조각, 폴리스타이렌 조각, 그물과 같은 대형 플라스틱은 작은 입자로 분해되어 미세플라스틱을 형성한다. 어류 등 해양 생물은 이를 먹이로 착각하여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진은 대서양 남서부 두 선단에서 잡은 참치

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어획물의 위에서 검출된 대형 플라스틱은 3% 정도였으나, 대부분 참치의 위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고, 섭취한 먹이의 약 7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된 34건의 먹이 중에서 355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대부분 1mm 이상의 거품, 알갱이, 섬유 등)가 검출되었다.

* 출처: Atuna, 2023년 4월 24일자



타이유니온, 1분기 순이익 45% 급감

매출 10% 감소...상온보관 제품 매출은 2% 감소

타이유니온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의 2023년 1분기 실적은 좋지 못했다. 타이유니온의 올해 1분기 총 매출액은 상온 참치 및 수산 제품의 전반적 매출 감소로 인하여 327억 바트(약 9억 6,138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였다. 1분기 순이익은 45%나 급감한 10억 바트(약 3,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른 부문과 달리, 타이유니온의 상온보관 식품 부문(의 매출 감소는 적은 편이었다.

1분기 상온보관 식품 부문의 매출액은 152억 바트(약 4억 4,72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 감소하였다. 매출량 기준으로는 2021년 대비 16.3% 감소하였다.

매출 감소는 제품 판매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부

분적으로 상쇄되었다. 브랜드 제품의 구매 가격이 전년 대비 4.1% 상승한 반면, 자체 라벨(private label) 상품에 대한 수요는 9% 가까이 감소하였다.

타이유니온은 전년도 1분기 대비 모든 주요 지역에서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구매자의 높은 재고 및 물류 정상화로 인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타이유니온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산물 통조림 수요 및 지속가능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혁신적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2분기에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 출처: Atuna, 2023년 5월 3일자

스페인 연구, “참치 셀레늄 건강 이점 추가 발견”

중금속 위험 감소 효과

스페인 Santiago de Compostela 대학의 전문가들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셀레늄은 금속 및 기타 금속성 물질에 대한 억제 역할을 하여, 참치를 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수년간 전문가들은 참치의 셀레늄이 수은의 영향을 중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번 연구 또한 같은 사실을 강조하였다.

셀레늄은 여러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 특정 유형의 암 및 천식 위험을 감소시키고,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다발성경화증 등의 정신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갑상선 건강을 개선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 출처: Atuna, 2023년 5월 8일자



中 일렉스 오징어 가격, 바르셀로나 전시회 앞두고 급등

남서 대서양에서 어획량 부진한 후 가격 상승

중국은 남서 대서양에서 어획량이 부진한 후 일렉스 오징어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보고하였다.

14주차(4월 3~9일)까지 3주 동안 아르헨티나산 라운드 냉동 오징어 가격이 150g~200g등급은 9%, 200g~300g은 10%, 300~400g은 9%, 400~600g은 2%, 600g 이상은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 후 150~200g 일렉스 오징어의 평균 가격은 톤당 27,583위안(4,008달러/톤), 200~300g 오징어는 27,167위안/톤, 300~400g은 29,750위안/톤, 400~600g은 29,750위안/톤, 600g 이상 사이즈는 33,167위안/톤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가격 인상은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Seafood Expo Global을 앞두고 중국 가공업체들이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 바이어들과

협상을 벌이는 데 따른 것이다.

중국 가공업체들은 올해 오징어 어획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원자재에 더 큰 비용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오징어링과 튜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였다.

중국 오징어 가공업체인 Yantai Five star Foods社의 한 임원은 3월 중순 북미수산물박람회(SENA)에서 "올해 공급량은 확실히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Agroindustria의 데이터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선박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성어기인 1월부터 3월까지 6만 5,497톤의 일렉스를 어획하였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 감소한 수치이며, 2021년과 비교하면 26% 감소한 수치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4월 18일자

中 오징어 선단, 페루 모니터링 회피 중

모니터링 회피 위해 페루 입항 기피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오징어 선단이 항만 모니터링으로 인해 페루 항구 입항을 기피하고 있어 어업 규정을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루는 2020년 외국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국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을 위성으로 실시간 추적한다. 해당 정보는 글로벌피싱위치(이하, GFW)의 지

원 하에 전면 공개된다. 그러나 중국 선단은 레이더로 추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현재 페루 항구 입항을 피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가공업체는 원료 추가 확보에 실패할 경우, 최종 제품 가격의 이윤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5월 5일자



페루 대왕오징어 가격 상승 아르헨티나 일렉스 오징어 어획량 감소 영향

아르헨티나의 일렉스 오징어 어획량 감소와 페루의 해수 상태 변화가 대왕오징어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씨푸드 엑스포 글로벌 전시회에 참석한 페루의 여러 공급업체가 말하였다.

“1~2월에는 대왕오징어 어획량이 좋았지만, 지금은 좋지 않다.”라고 페루 대왕오징어 가공업체 스프링밸리 프루트社(Spring Valley Fruit)의 부장은 말하였다.

지난달 사이클론이 가져온 폭우로 인해 페루 연안 인근 수역의 수온이 상승하였다.

현재 페루 연안의 수온이 평균보다 섭씨 2~3도 높다고 언급하며 온화한 엘니뇨로 보인다. 그러나 6월부터는 더 강력한 엘니뇨가 페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대왕오징어 어획량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페루페즈(Perupez)社의 사장에 따르면, 엘니뇨의 시작 시기와 강도에 따라 대왕오징어 어획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지난 3년간의 라니냐에 이어 2023년 6월부터 엘니뇨가 다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대왕오징어 가격이 1월과 2월에 하락하였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왕오징어 필렛 가격은 2월 이후 톤당 300달러 이상 급등하여 톤당 약 2,050달러에 달하고 있다.

페루산 대왕오징어는 항상 일렉스 오징어를 대체한다. 아시아는 우리의 주요 구매자 중 하나이다. 일렉스 오징어 시즌이 나빠지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조업 시즌은 지속되고 있으나 어획량은 저조하다. 한 아르헨티나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아르헨티나 일렉스 오징어 어획량은 작년의 절반 이하일 것이라고 한다. 가격은 3,000달러를 초과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5월 1일자

포클랜드 수산청 주간 어획량 발표 일렉스오징어 어획량 225톤 감소

포클랜드 수산청은 올해 4월 19일~25일 주간 어획량을 발표하였다.

로리고 오징어는 5,066톤(누계량 4만 9,292톤)으로 지난주(4.12~4.18) 수준(5,314톤)으로 어획되었으며, 일렉스 오징어는 404톤(누계량 4만 5,297톤)으로 지

난주보다 225 적게 어획하였다.

헤이크 어획량은 전주 대비 339톤 감소한 1,719톤(누계량 6,986톤), 이빨고기 어획량은 전주 대비 17톤 적은 1톤(누계량 564톤)이다.

* 출처: 포클랜드 수산청, 2023년 4월 28일자



러, 182만 톤 이상의 어획량 기록

5월 초까지 지난해 대비 6% 증가

모니터링 시스템 센터에 따르면 5월 3일까지 러시아의 모든 해양 생물 자원 생산량이 6% 증가하여 182만 톤에 달하였다.

총어획량 주요 기여는 극동 수역에서 발생하였다.

극동 수역의 어획량은 6.1% 증가하여 140만 톤에 달하였다. 명태 어획량은 7만 톤이 증가하여 100만 톤을 넘었다. 청어 어획량은 10만 7,000톤 증가한 22만 7,200톤, 가자미는 3,200톤 증가한 2만 4,700톤으로 증가하였다. 대구 어획량은 5만 4,200톤에 달하였다.

5월 2일 현재 연해주에 있는 수산물 보관 시설의 총 적재율은 21.6%로 일주일 전보다 1.9% 감소하였다. 어류 터미널에는 2만 8,100톤의 신선 냉동 수산물이 있다. 주로 명태, 청어와 대구의 신선 냉동 어획물을 선적한 16척의 선박 8,300톤이 연해주 항구에 있다.

북부 수역에서는 대구 9만 6,100톤, 대구 3만 2,500

톤(지난해 대비 5,100톤 증가), 카펠린 2만 3,000톤(전년 수준)을 포함하여 16만 8,400 톤을 어획하였다.

서부 수역에서는 어획량이 5.3% 증가하여 4만 1,000톤에 도달하였다. 청어 어획량은 2만 7,200톤으로 2,200톤이 더 많았고 발트해 청어 어업의 어획량은 1만 2,000톤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볼가-카스피해 수역에서는 지난해보다 4.3% 증가한 3만 4,200톤을 어획하였으며, 이 중 2만 4,500톤(6,500톤 증가)은 산천어 어획량에서 증가하였다.

아조프-흑해 수역에서는 유럽 멸치류 8,500톤을 포함하여 11,000톤을 어획하였다.

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협약 수역 및 공해에서 러시아 어선의 생산량은 16만 6,500톤으로 지난해보다 20% 증가하였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3년 5월 3일자

中 명태 수입 및 수출 가격 지속 상승

중국 명태 소비량 증가 가능

중국은 2022년 59만 8,180톤의 H&G 명태를 수입하고 20만 8,000톤의 명태 필렛과 블록을 수출하였다. 2021년에 비해 수입은 56% 증가하였지만, 수출은 19% 증가에 그쳤다.

2022년 중국은 H&G 명태 원료 수입량 3톤당 필렛과 블록 1톤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H&G 2톤 수입당 1톤을 수출하였다.

수출의 경우, 독일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9만

8,000톤의 수출량을 기록하여 최대 수출 시장으로 남아 있다. 금액 기준으로 대독일 수출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3억 3,99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수입 러시아산 H&G 명태의 평균 단가는 지난해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중국의 수입 H&G 명태의 평균 단가는 1,349달러/톤로 2021년에 비해 11% 상승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4월 19일자



러 명태 TAC, 생산금액 감안한 계획 필요

‘24년 명태 TAC 228만 5천톤으로 예측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과학-실무 회의에서, 명태 어업의 경제적 결과는 어획량에 의존하지 않으며 양적 측면 외에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태어업협회(ADM)장은 말하였다.

2022년 극동 수역의 명태 총어획량은 190만 톤이었고 소진율은 92%였다. 최근 3년간 소진량은 10년 평균 수준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 극동 수역의 명태 TAC는 지난 25년 동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의 TAC는 228만 5천 톤으로 예측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는 명태 어획량의 37%가 가공 제품 생산에 사용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조업에는 명태 필렛과 연육을 생산할 수 있는 42척의 어선이 투입되었다. 따라서 1/3의 트롤 어선에서 가공 제품을 생산하였다.

2022년 말까지 러시아는 처음으로 미국보다 더 많은 명태 필렛을 생산하였지만, 이는 미국 어민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촉진되었다.

연안 시장은 명태 가공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명태협회에 따르면 2022년에 연안 공장에서 23만 6,000톤의 명태를 가공한 것으로 추정하며 총 35만 6,000톤의 다양한 해양생물을 가공하였다.

국내 시장에 대한 명태 공급은 지속 성장 추세이며 2022년 공급량은 18만 3천톤에 달하였다. 2014~18년간 국내 시장 출하 명태는 평균 12만톤이었지만, 최근 3년간 18만 5천 톤이 출하되었다.

ADM 회장은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에 따르면 어업의 경제적 결과는 어획량에 의존하지 않으며, 어획량이 많으면 수입이 줄어든다.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표를 사용하여 어업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자원의 장기적인 안정성, 시장 및 재무 성과에 관심이 있으므로, TAC를 결정할 때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생산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FISHNET, 2023년 4월 17일자

러 수산청, 러시아 위성으로부터 AIS 데이터 수신 시작

계약에 따라 모든 선박 및 수역의 선박 자료 취합

러연방수산청 산하 어업모니터링-통신시스템센터(CFMC)는 시트로닉스 그룹(Sitronics Group)의 해안 및 위성 자동 식별 시스템(AIS)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어선 위치 정보를 수신하기 시작하였다.

센터와 시트로닉스 그룹 간의 협력을 통해 어선과 수역을 모니터링하여 해양 생물 자원을 보존

하고 어장 내 상업 선박을 통제할 수 있다.

체결된 계약에 따라 러시아 영해, 대륙붕, 러시아 EEZ, 세계 해양 등 모든 수역에서 운항하는 러시아 선박의 시간, 위치, 항로 및 속도에 대한 데이터가 센터로 전송된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3년 4월 28일자



수산물 가격, 러시아 시장의 주요 제약 요인

생선제품 대중화를 위해서 소비자의 인식 제고 필요

분석가들에 따르면 생선 소비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가격은 러시아 시장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남아 있으며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몇 년 동안 그 영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2023년 4월 13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생선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러시아 및 국제 생선 시장 동향과 생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생선은 가장 중요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이며, 인구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농업부에 따르면 러시아의 생선 자급률은 지난해 153%로 권장 소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1인당 28kg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제품을 현대적인 트렌드에 맞춰 스토리를 부여하고 소비자의 눈에 긍정적인 평판을 만드는 것이다. 성숙하고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는 이러한

스토리가 더욱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승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의 전통과 역사가 더 중요하다.

NTech의 분석 책임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매 체인의 생선 판매량은 35~40%, 금액 기준으로는 17~25% 감소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주요 원인으로, 이 기간 통조림, 보존 및 냉동 생선 가격은 44% 상승했지만, 훈제 및 소금에 절인 생선 가격은 107% 상승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냉동 생선 부문의 성장은 명태와 같은 저가 생선이 주도해 왔다.

생선 구매의 장애물 중 하나는 높은 가격이다.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고, 준비 과정이 길거나 불편하며, 소비자 인식이 낮은 점이 장애물로 파악되며 생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생선 제품을 대중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 출처: FISHNET, 2023년 4월 17일자

러, 영해 밖에서 성공적으로 조업

지난해 어획량보다 23% 증가

2023년 4월 17일까지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 협약 수역 및 공해 수역에서 러시아 어선의 어획량은 약 13만 8,000톤으로 작년보다 23% 증가하였다.

보고 기간 120척의 러시아 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러시아 EEZ) 밖에서 조업 및 횡단 중이었으며 90척은 외국 항구에 정박 중이었다.

현재 러시아 선단은 모리타니, 나미비아, NEAFC(북동대서양수산위원회), NAFO(북서대서양수산기구) 및 SPRFMO(남태평양수산물관리기구)를 포함한 외국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3년 4월 21일자



러, 불법어업선박에 대한 데이터 공유 준비 완료

5월 21일 발효

2020년 12월 러시아는 2020년 12월에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의 예방, 억제 및 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 협정을 비준하였다. 협정 참여국은 불법 어획물의 상륙을 막기 위해 자국 항구에 여러 가지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2022년 11월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연방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국제기구와 위반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3년 4월 28일 명령 678호에 의해 특별 절차를 승인하였다.

러연방 수산청은 계약의 다른 당사자인 국제기구와 데이터를 교환할 것이다. 어선이 입항을 요청할 수 있는 항구, 국경수비대의 선박 검사 결과, IUU 리스트에 등재된 위반 선박에 대한 입항 거부에 대한 정보 교환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5월 21일에 발효된다.

러연방수산청은 항만국 조치 협정에 따른 정보 교환의 중심이 될 것이다.

※ 출처: Fishnews, 2023년 5월 3일자

러, Inmarsat 대신 자국 시스템으로 변경

자국 시스템 설치 적극 참여 권고

러시아는 어선 운영에 대한 통제를 러시아 Gonets 시스템으로 이전 할 계획이다. 외국 시스템 "Inmarsat"의 장비 사용은 2024년 9월 1일부터 제한될 예정이다.

"러연방수산청장이 개최한 운영 회의에서 그들은 선박이 Gonets 시스템 장비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와 "선박에 기술제어장치를 장착 절차, 유형, 사용 요구 사항 및 기술제어장치 기능제어 절차에 대한 농업부 명령" 초안 승인에 대한 작업을 논의하였다.

현재 문서의 기술적 측면이 논의되고 있다. 농업부

와 연방수산청은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협력하여 미해결 문제에 대한 승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주는 어업통신모니터링 센터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내 시스템 "Gonets"설치 및 시운전 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장한다.

언론 서비스는 "최근 Inmarsat 시스템의 오작동은 산업과 국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러시아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시켜준다."라고 덧붙였다.

※ 출처: Fishnews, 2023년 4월 25일자



日, 2022년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액 12억 달러 역대 최고치 기록

일본 교도통신이 재무성 데이터를 통하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액은 1,552억 엔(약 1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일본은 자국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무역 제재에서 수산물 부문을 제외했다.

이전 수입액 최고치는 2018년에 기록한 1,402억 엔이다. 전체 수산물의 약 40%가 수입품인 일본 시장에서, 러시아는 2022년 액수 기준 최대 공급국 3위를 차지하였다.

수입액 비중 1위인 대게의 2022년 수입액은 326억 엔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다. 명태 연육 수입량은 전년 대비 7배 증가한 74억 엔이다.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하라구치 세이지 이사는 “러시아 정부는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 수산업 활성화에 주력 중이며, 앞으로 러시아산 수산물의 일본 내 입지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5월 5일자

日 수산청, 2023년 공치 TAC 24% 감축 제안 11만 8,131톤

일본 수산청은 지난 4월 13일, 2023년 어기(2023년 1월~12월)의 공치 TAC 의견교환회에서 11만 8,131톤의 TAC를 제안하였다.

이는 전 어기 대비 24% 감소한 수치로, 지난 3월 개최되었던 북태평양어업위원회(NPFC) 연례 회의에서 채택된 보존관리조치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제안은 24일 수산정책심의회에서 자문받을 예정이며, 제안에 대한 업계의 반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NPFC 회의에서 공치 TAC는 기존의 연 19만 8,000톤에서 25% 감축된 15만톤으로 합의되었다.

일본과 러시아의 EEZ 쿼터는 10만톤으로 감축되었다. 공해상 일본 쿼터는 2만 1,087톤이다. 즉, 일본의 쿼터는 일-러 EEZ 쿼터 10만톤 중 일본의 지난 3년간 어획 비율 97.04%를 곱한 9만 7,044톤과 공해 쿼터를 합한 11만 8,131톤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4월 17일자



물가 상승으로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실적 최고치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

기록적인 가격과 환율로 2023년 1분기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 수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SC)의 Christian Chramer CEO는 이러한 호조가 세계 무역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노르웨이의 2023년 1분기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즉 74억 NOK(6억9890만 달러, 6억4050만 유로)가 증가하여 총무역액은 414억 NOK(39억 달러, 36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2023년 1분기에는 2022년 1분기 대비 8.7% 감소한 총 69만 3,400톤의 수산물을 수출하였다.

Chramer는 보도 자료에서 노르웨이 크로네의 "현저한 약세"와 연어, 대구, 송어, 명태, 청어 등의 어종에 대한 높은 시장 가격이 이번 분기 가치 성장의 주요 동인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가격 덕분에

노르웨이는 2023년 3월 한 달 동안 157억 크로네(15억 달러, 14억 유로)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역사상 가장 큰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이는 2022년 3월보다 26%, 즉 32억 NOK(3억 2,210만 달러, 2억 7,690만 유로)가 증가한 수치이며, 종전 기록인 2022년 10월보다 5억 6,100만 NOK(5,300만 달러, 4,850만 유로)가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의 무역 추세를 이어가면서 2023년 1분기 노르웨이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즉 10억 NOK(9,440만 달러, 8,650만 유로)의 수출액 증가로 모든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NSC는 연어 판매가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 가치 증가를 주도하고 있지만 송어와 냉동 대게 판매도 이번 분기에 강세를 보였다고 말하였다.

*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4월 13일자

환경정의재단, 수산물 이력추적 강화 촉구

IUU 방지 목적...원스톱형 온라인 플랫폼 도입 요구

국제 환경 NGO인 환경정의재단(이하, EJF)이 신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수산물 이력추적 강화를 촉구하였다.

'The Broken Barrier(무너진 장벽)'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한국 수산물 산업에 대한 EJF의 비판과 함께 한국 정부가 타 국가의 기준에 부합

하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EJF는 또한 소비자들이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구매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산물 정보 대중 공개를 권고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4월 19일자



베트남 수산물 무역 그룹, 韓 불공정 대우 주장

한-페루 FTA 따라 페루에는 쿼터와 관세 미적용

베트남 수산물 무역 협회는 회원사들이 한국으로 새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무역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3월 중순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보낸 서한에서 베트남 수산물수출생산자협회(VASEP)는 2015년 12월 발효된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베트남산 새우 수입을 관리하기 위해 쿼터와 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새우에 대한 면세 쿼터는 FTA 발효 첫째 연간 1만 톤에서 2020년에는 연간 1만 5,000톤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수입업자에게 경매를 통해 쿼터를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입 금액의 14~16%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이 할당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새우에는 20%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 결과 베트남 새우는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졌고, 한국 수입업자들은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새우를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VASEP는 한국과 페루 간 FTA에 따라 현재 새우에 대한 쿼터와 관세가 없으므로 새우 산업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VASEP에 따르면 페루는 한국의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국가이다. 한-페루 FTA에 따라 한국이 부과하는 페루산 새우에 대한 관세는 2011년 8월 20%에서 5년 후 0%로 점진적으로 인하되었다. 그 후 한국의 페루산 새우 수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배 증가했으며, 작년 수입량은 2021년 대비 176% 증가했다.

VASEP는 한국이 페루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새우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를 원한다고 말하였다.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기타 베트남 관련 부처에 베트남산 새우에 대한 쿼터와 관세를 폐지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기관과 협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4월 18일자

美, 북극해 상업 어업 개시 준비

북극 수역 상업적 조업 위한 정부 예산 배정

미국 알래스카 주는 미연방 북극 수역에서의 상업적 어업에 대한 14년간의 유예 조치가 해제될 시기를 대비하고 있다.

최근 알래스카 어업당국은 북극 수역의 상업적 조업을 시작하기 위한 조사 연구 예산으로 주 정부로부터 100만 달러, 연방정부로부터 2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래스카 어업 당국 측은 해양 생물 자원의 어군 형성이 북쪽으로 이동 중이며 타국 선단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당국은 또한 러시아나 다른 나라들이 어업 기회를 찾아 해당 수역으로 진출할 때 우리는 연안에만 머무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홋카이도 기선련, 2023년 4월 19일자



美, 1분기 수산물 인플레이션 둔화

냉동 부문 제외 전 수산물 부문 수혜

5월 2일 '미국 소매업의 수산물'을 주제로 진행된 미국 웨비나에서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미국 소매업의 수산물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둔화하여 냉동 부문을 제외한 업계 전 부문이 수혜를 입었다.

리서치 업체 210 Analytics社의 Anne-Marie Roerink 대표에 따르면 023년 1분기 전체 식음료 물가는 2022년 1분기 대비 11.3% 급등하였으나, 냉동 수산물 물가는 3.9%, 신선 수산물 부문은 2.2%, 상온 보관 수산물 부문은 3.7% 상승하는 데 그쳤다.

Roerink에 따르면 이러한 상승률은 2022년 전체에

걸친 물가 상승률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동 수산물의 1분기 매출은 3.2% 감소한 18억 6,000만 달러에 그쳤다. 같은 기간 동안 신선 수산물 매출은 0.2% 증가한 166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상온 보관 수산물 매출은 3.8% 증가한 7억 1,1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Roerink 대표는 냉동 식품이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보였기 때문에 매출 감소는 냉동 수산물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수산물 인플레이션이 지난 수개월간 대폭 둔화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5월 2일자



日, EU에 식품 규제 철폐 요청

G7 각료회의서 일본산 식품 규제 폐지 요구

노무라 테츠로 일본 농림수산업장관은 21일 개최된 G7 각료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 농업위원회에 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EU가 도입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하였다.

장관은 EU 회원국인 독일, 이탈리아 각료에게도 각각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하였으며, 6월 말로 예정된 규제 재검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4월 25일자



전 세계 어분 생산량 1.5배 증가 어유 20% 감소

국제어분연맹(IFF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첫 두 달 동안 전 세계 어분 생산량은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루에서 가장 높은 어분 생산량을 기록한 것은 페루 중북부 지역의 두 번째 멸치 조업 시즌(2월 5일 종료)이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즌 동안 멸치 쿼터(230만 톤)의 84%가 어획되었다.

IFFO의 설명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페루 정부가 곧 페루해양연구소(IMARPE)의 멸치 자원량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개발량과 다음 조업 시즌 시작일에 대한 공식 발표가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유의 경우, 2023년 첫 2개월 동안의 총 누적 생산량은 아이슬란드와 북대서양에서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감소했다.

또한 2023년 2월 어유 생산에 사용된 총 해양 원료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스페인, 아이슬란드, 북대서양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어획량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5월 1일부터 중국 연안에서 어획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IFFO는 '인간이 직접 소비하는 어류 부산물은 이러한 제품의 수입과 함께 원료 공급원으로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 나라에서는 2023년 첫 달에 양식 사료 생산이 수요 제약에 직면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와 긴 연휴로 인해 양식과 양돈 모두에서 계절적 활동이 둔화하였기 때문이다.

* 출처: Fishnet, 2023년 5월 5일자

러, 쿠나시르 섬에 어분 및 어유 시설 건설 지역 일자리 및 연방 예산 창출

유즈노-쿠릴스키 생선 공장이 쿠나시르 섬에 어분 및 생선 기름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러시아 정부는 비용 일부를 보상한다.

이 회사는 현재 명태, 대구, 가자미, 연어, 고등어, 오징어 등 어종을 연중 지속하여 처리한다. 유즈노-쿠릴스키 생선 공장은 2015년부터 생산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32억 루블 상당의 투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단백질 함량이 최대인 어분을 생산하는 프

로젝트를 개발했다. 이 사료는 어류 양식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사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주요 원료는 생선 머리, 뼈, 부산물, 작은 고등어와 정어리류이다.

이 회사는 하루에 최대 200톤의 완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현대적인 육상 가공 시설, 부두, 1,200톤 규모의 냉장 보관 시설 및 완제품을 냉장 운송 트럭으로 수령, 가공 및 배송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 출처: Fishnet, 2023년 5월 5일자



中, 2023년 1분기에 기록적인 양의 새우 수입

27만 4,479톤, 14억 4천만 달러에 달해

중국 세관이 발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2023년 첫 3개월 동안 기록적인 양의 새우를 수입했다.

중국 바이어들은 1분기에 2022년 1분기보다 34% 증가한 27만 4,479톤의 새우를 수입했으며, 수입액은 작년보다 16% 증가한 14억 4,000만 달러에 달했다.

언더커런트 뉴스는 3월 냉동 온수 새우 구매량이 총 10만 5,687톤으로 작년보다 74% 증가했으며 월별 신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에콰도르는 1분기에 중국 최대 새우 공급국으로 남아 17만 9,094톤(2022년 1분기보다 43% 증가)을 선적하며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최고 기록을 세웠다. 중국의 두 번째 최대 공급국인 인도는 16%

증가한 2만 5,769톤을 공급했다.

세 번째로 큰 공급처인 아르헨티나는 붉은 새우 수출량을 205%(6,952톤) 늘렸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태국은 각각 231%와 1% 증가한 4,744톤과 4,280톤을 공급했다.

중국으로의 냉수 새우 수입량은 2022년 1분기 1만 4,846톤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냉수 새우 수입액은 8,700만 달러로 19% 증가했다.

한편, 중국의 냉동 온수 새우 평균 수입 단가는 2월 5.33달러/kg에서 3월 5.50달러/kg로 증가했다.

중국이 에콰도르에서 수입한 새우는 평균 5.31 달러/kg로 2월 최저치인 5.15 달러/kg에서 증가했다.

* 출처: Fishnet, 2023년 5월 5일자

RFC사, 특수 트롤 조업 방식 사용

해양 환경에 피해 없이 명태 등 심해어 조업

오랫동안 심해 물고기는 간단한 어법으로는 잡기가 어려웠다. 그러한 물고기 중 하나가 명태이다. 이 귀중하고 유용한 자원은 최대 300미터 깊이에서 서식한다.

비교를 위해 모스크바 참새산에 있는 로모노소프 모스크바 주립대학교는 높이가 240미터에 불과하고 파리의 에펠탑은 324미터에 달한다.

이러한 수심에서 조업하려면 특별한 접근 방식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일반 도구로는 이곳에서 할 수

없으므로 러시아 어류 산업 회사(RFC)는 특별한 트롤 조업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만이 환경 규정을 준수하고 해양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귀중한 명태를 잡을 수 있다.

RRIC는 신조 선박을 포함하여 모든 선박이 이러한 작업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어획량 측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 출처: Fishnet, 2023년 5월 4일자



유럽어업 단체, 저인망 트롤 금지에 반대 시위

유럽해역 30% 금지

유럽 저층트롤 선단을 대변하는 유럽저층어업연맹(이하, EBFA)이 EU의 해양보호구역(이하, MPA) 저층 트롤 어구 사용 금지에 대한 범유럽적 반대 시위를 예고하였다.

이 시위는 2023년 5월 9일에 열릴 예정이며, 어민들은 "엄청난 불만"을 표출할 것이라고 EBFA는 밝혔다.

이번 행동 촉구는 어민들이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는 저층 어구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유럽 위원회의 일련의 제안 이후 나온 것이다.

2022년 EU 집행위원회(이하, EC)는 해저 400m 이하의 수심에서 저층 트롤 어업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고, 차후에 금지령을 수정한 바 있다. 이후 EC는 올해

2월 발표된 실행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MPA 저층 트롤 어업의 단계적 중단을 촉구하였다.

EBFA 의장은 이번 제안이 브렉시트, 코로나19 팬데믹 후유증, 해상 풍력발전소 등의 산업과의 해양 공간 경쟁, 인플레이션,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의 요인들이 유럽 어업 활동에 큰 압력을 가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유럽위원회의 '행동 계획'과 유럽 해역의 30%에서 저인망어업을 금지하는 제안은 유럽에서 저인망어업에 또 다른 대못을 박는 것이며, 이는 정부, 유럽 의회 및 업계로부터 항의를 촉발했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Fishnet, 2023년 5월 3일자, 5월 5일자

러, 사료 부족에도 양식 생산량 16% 증가

수산물 소비량 감소 예상

대서양 연어와 송어 양식업자들은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 감소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 연방 수산청에 따르면 러시아의 1분기 양식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18만 1,400톤을 기록했다.

양식 연어와 송어 생산량은 28% 증가한 70,100톤을 기록했으며, 이는 러시아 전체 양식 생산량의 약 39%를 차지한다. 굴, 홍합, 가리비 및 기타 연체동물과 같은 무척추동물 양식은 13.5% 증가한 6만 3,200톤으로 증가했다.

잉어 생산량은 4만 1,200톤, 양식 철갑상어 생산량은 2,800톤에 달했다.

러시아의 양식업 생산량 증가는 이 분야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의 주요 공급 업체들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면서 양식업체들은 심각한 사료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대서양 연어와 송어 생산업체들은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 약화 및 물가 상승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간 러시아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5~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연어류의 소비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출처: Fishnet, 2023년 5월 4일자



어 부

김 종 삼

바닷가에 매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머얼리 노를 저어 나가서
헤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 되어서
중얼거리려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4월 오징어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생산량 감소, 소비자가격 상승 지속

□ **생산동향**(4월 오징어 생산량, 전월 대비 7% 감소한 7,992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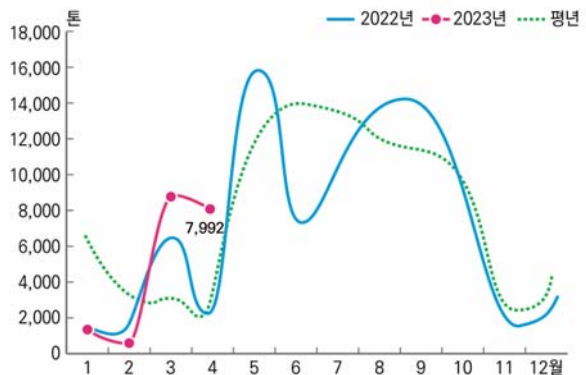
4월 오징어 생산량은 7,992톤으로 전월 대비 6.6% 감소했으나 작년 및 평년보다는 많았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4월부터 오징어 금어기가 시작되어 전월 대비 많이 감소한 22톤이었다.

원양산 반입량은 7,970톤으로 전월보다는 2.4% 감소했으나,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 세 배 이상 많았다.

원양산 오징어는 지난해 12월 조업이 재개되었으며, 어기 초 어황이 호조를 보여 3월에 이어 4월에도 많은 양이 반입되었다.

그러나 3월부터는 작년 및 평년 대비 부진한 어황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원양산 오징어 생산량은 3만 2,648톤으로, 작년(38,949톤) 및 평년(35,035톤) 대비 각각 16.2%, 6.8%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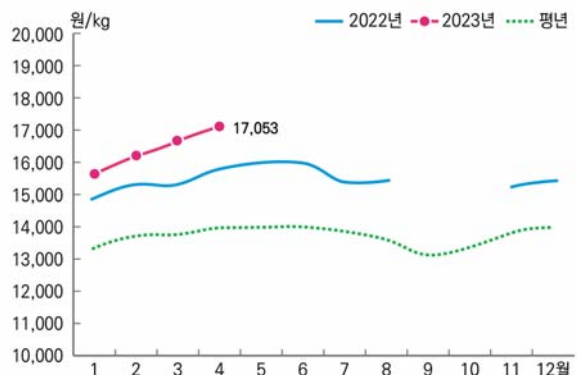
□ **가격동향**(4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kg당 77,053원으로 상승세 지속)

4월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금어기로 생산이 줄면서 전월 대비 8.5% 상승한 kg당 4,316원이었음

도매가격도 전월 대비 7.0% 상승했으나, 소비자가격은 형성되지 않았다.

오징어(냉동) 도매가격은 원양산 반입 및 수입이 많아 전월 대비 1.5% 하락한 kg당 10,239원이었다.

반면, 소비자가격은 일부 대형소매점 할인행사가 종료로 전월 대비 2.5% 상승한 kg당 17,053원이었으며, 전년 및 평년 대비 높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다.





□ 수출입동향(4월 오징어 수출 및 수입량, 전월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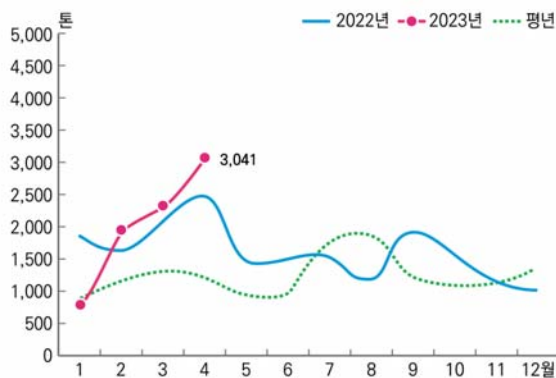
4월 오징어 수출량은 3,041톤으로 전월 대비 32.3% 증가했으며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도 많았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2,269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미국(405톤), 베트남(203톤)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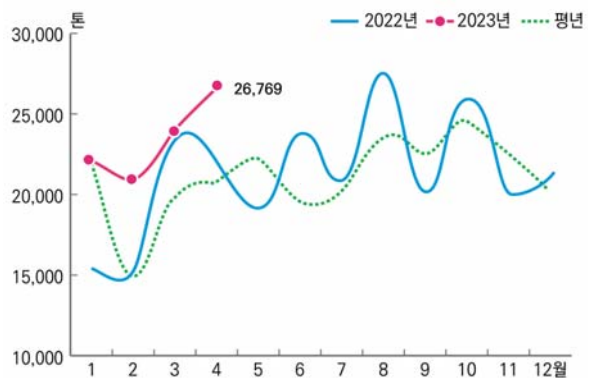
4월 오징어 수입량은 전월 대비 12.3% 증가한 2만 6,769톤으로,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도 20% 이상 많았음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 9,714톤, 기타 1만 7,055톤이었으며, 기타는 대부분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제품
(14,722톤)이었다.

국가별로는 페루산 1만 5,209톤, 중국산 8,953톤 등 2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 오징어 수출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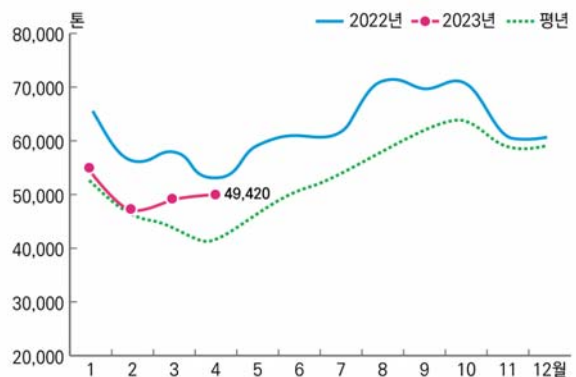
〈 오징어 수입량 추이 〉



□ 재고동향(4월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1% 증가한 4만 9,420톤)

4월 말 기준 오징어 재고량은 4만 9,420톤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으나 여전히 작년보다는 6.7% 적었음

5월은 원양산 반입이 많은 시기이며 근해채낚기어업의 조업이 재개되며 연근해 생산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고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출처: KMI 수산관측 4월호



4월 명태 국내 동향

휴어기로 생산 없었으며, 소비자가격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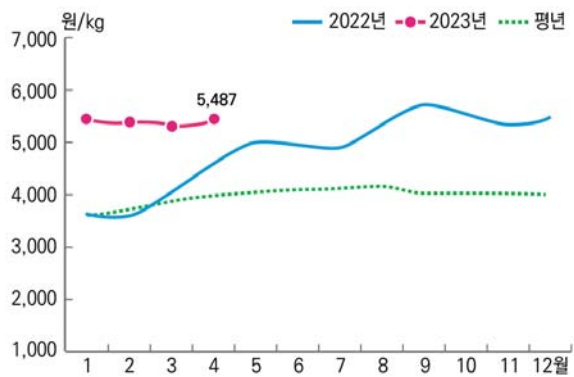
□ **가격동향**(4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kg당 5,487원으로 전월 대비 3% 상승)

4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1.6% 상승한 kg당 2,515원이었다.

작년 ‘러-우’ 사태 후 3월부터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4.3% 낮았으나, 평년보다 12.9% 높았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5,487원으로 정부비축물량 방출 할인행사가 종료됨에 따라 전월 대비 3.3% 상승하였다.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도 각각 21.1%, 37.3%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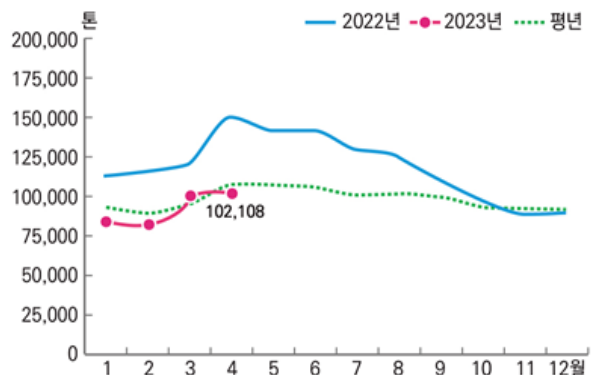


□ **재고동향**(4월 재고량, 전월과 비슷한 수준 유지)

4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10만 2,108톤으로 전월 (101,506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수입량이 감소했으나 수출도 줄었기 때문이다.

對중국 재수출용 물량이 크게 늘었던 작년에 비해서는 31.7%, 평년 대비 5.1% 적었다. 3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전월(89,611톤) 대비 10.4% 증가한 9만 8,959톤이었다.





□ 수출입동향(4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21% 감소한 2만 5,536톤)

4월 명태 수출량은 2,378톤으로 전월(3,721톤) 대비 36.1%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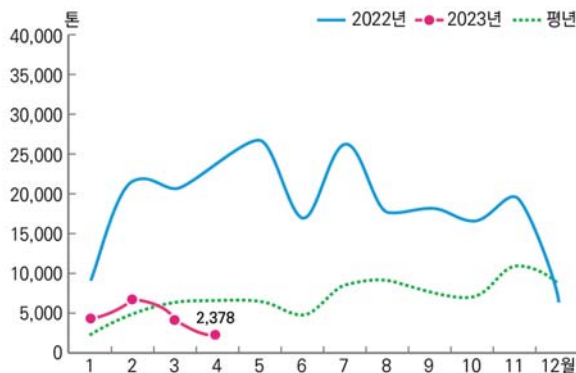
對중국 재수출물량이 많았던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90.2%, 평년 대비 63.8% 적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1,680톤), 베트남(93톤) 등의 순이었다.

명태 수입량은 전월(32,380톤) 대비 21.1% 감소한 2만 5,536톤이었다.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도 각각 61.8%, 40.0%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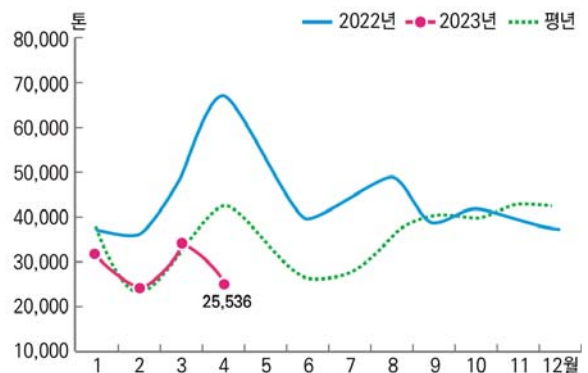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는 러시아산 냉동명태(9,913톤)와 냉동필렛(5,393톤), 미국산 냉동연육(4,810톤), 러시아산 건조명태(2,022톤) 등의 순이었다.

4월까지 누적 수입량은 11만 4,676톤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0.1%, 14.8% 적었다.

〈 명태 수출량 추이 〉



〈 명태 수입량 추이 〉



* 출처: KMI 수산물측 5월호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할 사업대상자 모집

2023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대상자 선정 시
건조금액 최대 50% 15년간 무상용자로 지원

해양수산부는 4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建造)를 위한 '2023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용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펀드 재원 180억 원을 활용하여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지원한다.

세계로선박금융(주) 주관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선사의 기업건실도, 원양어업 및 연관산업에 대한 기여도, 성장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안전펀드를 지원받는 원양어업자는 원양어선을 새롭게 건조한 후 선박대여회사와 15년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4년차부터 12년

간 정부 지원금액을 상환하면 만기 때 선박의 소유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www.globalmarif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 → Notice 게시판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을 통해 새롭게 건조되는 선박은 불연성 소재 사용, 국제적 안전기준에 따른 구명정·구명뗏목 비치 등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선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선실의 높이와 침실 바닥면적, 침대 규격 등도 국제 협약기준에 맞춰 기존 선박보다 확대되도록 하고 있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통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척의 선박이 새롭게 건조되었고, 올해도 6호선과 7호선의 건조가 완료될 예정이다.

방사능 검사 대상 수산물, 국민이 직접 정한다

국민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씩 선정해 방사능 검사 실시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신설하고 4월 24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국민 누구나 방사능 검사 게시판(seafoodsafety.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품목과 지역을 선택하여 주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현황은 투명하게 공개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선정기준과 검사결과 공개 방식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씩 선정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5월 중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일터 만든다

4. 27.(목) 중대재해 예방 위한 해양수산업·단체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27일(목)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업·단체 최고경영자와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3월 2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 △안전문화 확산 등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세부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최근 있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를 설명 예정이다.

*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 중대재해 발생 원청대표 유죄 판결(2023. 4. 6.,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특히,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편**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모두가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는 제도

** 위험성평가 방법 다양화, 평가시기 명확화, 근로자 참여 확대, 평가결과 근로자 공유 등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20일 소속기관과 산하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오는 6월부터는 해양수산업 분야 민간 업·단체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는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올해 개편되는 만큼, 현장에서도 제도 이행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 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 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기획홍보부(우편번호: 06775)

○ 팩스: 02-589-1630/1631 ○ 메일: kosfa@kosfa.org



러시아 어선화재, 러시아 선원 21명 구조

4. 21. 새벽 동해상 칼탄호 선원 21명 구조, 4명 실종자 총력 수색

해양수산부는 4월 21일 새벽 동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KALTAN, 러시아 국적, 769톤)에서 러시아 선원 21명을 구조하고 실종된 4명은 총력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일 00시 43분경 울산시 울주군 고리 남동방 28해리 해상에서 러시아 어선으로부터 구조신호(EPIRB, 위성조난신호)를 수신하고, 해군, 해경 함정과 민간선박 20척, 공군-해경 항공기 2대를 사고 현장에 급파하였다.

사고해역 인근을 항해 중이던 유명2호(8.55톤)가 사고 현장에 01시 50경에 먼저 도착하여 사고 선박에서 구명뗏목을 타고 탈출하여 해상 표류 중인 선원 21명을 구조하였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선원 4명에 대해서는 공군의 조명탄 투하 지원 하에 수색세력이 주변 해상을 집중 수색 중이나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실종된 선원 수색을 위해 일본 해상보안청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구조된 선원 21명 중 19명은 해경정(130정)을 타고 09시 35분 울산항에 안전하게 입항하였고, 나머지 2명(선장, 기관장)은 사고 선박 입항 후 화재진압과 수색 지원을 위해 해경정에 안전하게 탑승해 있다.

해경청과 소방청은 사고 선박이 울산항에 입항하는 대로 화재진압을 완료하고 구조대원을 투입하여 선내 수색을 통해 실종자가 선내에 남아 있는지 여부를 정밀 수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사고해역에 기상 악화로 난항을 겪고 있으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실종자에 대한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구조된 선원이 안정을 찾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북극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산·학·연 북극권 자원개발 협력 등에 적극 참여 기대

해양수산부는 5월 10일 열린 '북극경제이사회 연차회의'에서 한국 북극연구 컨소시엄과 북극경제이사회가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산·학·연의 북극활동 영역이 경제·산업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 북극연구 컨소시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북극경제이사회와 공식 협

력창구를 마련한 것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양측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경제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공유 창구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북극산업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기업은 정보 제공에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북극경제이사회 및 산하 회원기관들과의 국내외 공동행사 개최 등을 통해 북극권과의 경제·산업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상무	신현애	589-1602	해외협력본부장
이사	이형균	589-1603	경영지원본부장
비서(대리)	조한솔	589-1601/1621	비서, 출납업무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강성현 부 장	589-1604	총괄
		공길웅 과 장	589-1605	총무, 자금
		조성환 과 장	589-1606	서무관리, 차량운영
	기획홍보부	이형균 이 사	589-1603	총괄(겸직)
		조성주 과 장	589-1608	기획, 홍보
		김민재 주 임	589-1609	원양뉴스, 생산통계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 장	589-1610	총괄
		김영수 과 장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최은혁 주 임	589-1619	노사, 선원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1부	신현애 상 무	589-1602	총괄(겸직)
		최봉준 과 장	589-1613	국제협력
		백상진 주 임	589-1614	참치선망
	해외협력2부	정윤경 사 원	589-1615	참치연승
		진호정 부 장	589-1616	총괄
		최상진 주 임	589-1617	오징어, 기타트롤
부산지부	이성재 이 사	051-253-3388	총괄	
				김현애 과 장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 장	051-253-3391	차량계량
		최광준 팀 장		차량계량

해외수산물협력센터	센터장실	이상묵 센터장	044-868-7360	총괄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 총괄, 기획
		김단비 행정관	044-868-7837	인사, 예산, 명예수산물
	해외진출팀	이은 행정관	044-868-7836	ODA, 해외투자교육
		신승호 행정관	044-868-7838	통계, OFIS

해외수산물협력센터	국제협상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물기구
		김수민 전문관	044-868-7363	일반/지역수산물기구
		-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물기구
		-	044-868-7833	일본/지역수산물기구

■ 홈페이지: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02-589-1630/1, (부산지부): 051-253-3392, (해외수산물협력센터): 044-868-7840

명에해양수산물관 연락처

구분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수산물관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수산물관	679-330-7188 ckpfj@naver.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수산물관	62-0343-4742525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홍 수산물관	233-303-200995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수산물관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수산물관	64-3-344-1617 seajho@xtra.co.nz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수산물관	675-321-8137 jc651016@gmail.com
아르헨티나	이상우 수산물관	54-223-495-0712 kargeexport@gmail.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구분	성명	연락처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창원 자문위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자문위원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57호

발행: 2023년 5월 15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울라-9183호/간별: 월간

발행처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